

200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 김 현 선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

강 권 용

목 차

표목차	iii
논문개요	iv
1. 서론	1
1.1. 문제 제기	1
1.2. 선행연구 검토	3
1.3. 연구 방법	5
2. 제주도 본풀이의 전승현황	8
2.1. 제주도 무속의 변화	8
2.2. 제주도 본풀이의 분류	12
2.3. 특수본풀이 자료의 재검토	16
3. 세 특수본풀이 분석 및 제의적 관련성	20
3.1. 〈원천강본풀이〉	27
3.2. 〈세민황제본풀이〉	43
3.3. 〈허궁애기본풀이〉	46
4. 제주도 무속에서의 세 특수본풀이의 특징	59
4.1. 무신격의 세속화	59
4.2. 고소설의 수용과 무속신화적 성격의 퇴화	62

4.3. 저승과 이승 구분의 재인식	64
5. 특수본풀이의 변화 및 소실	70
6. 결론	74
참고문헌	77
부록	
2002년에 채록된 〈허궁애기본풀이〉 자료	80
Abstract	84

표 목 차

표 1. 각 지역 인구수 및 무숙인 비율 자료	9
표 2. 채록된 열두 개 특수본풀이 자료	16
표 3. 박봉춘 심방 무가계	23
표 4. 조술생 심방 무가계	25
표 5. 오인숙 심방 무가계	26
표 6. 아기장수 설화와 원천강본풀이 비교	37
표 7. 원천강이 나오는 본풀이 자료	39
표 8. 세 특수본풀이 내용 및 제의 비교	58
표 9. <원천강본풀이> 각편 자료	59
표10. <세민황제본풀이> 각편 자료	62
표11. 환생담이 나오는 일반신본풀이 자료	63
표12. <허궁애기본풀이> 각편 자료	65

논문개요

본 연구는 제주도의 무속에서 채록되어진 본풀이 중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통해 특수본풀이들의 제의적 의의를 규명하고 무속적 제인식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불려지는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일반적으로 구분하지만 이 구분법에 속하지 않는 본풀이를 특수본풀이라 칭한다. 특수본풀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 두 번에 걸쳐 조사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곳에서 불려지고 있지 않으며 조사된 것도 몇 편에 불과하다.

필자는 특수본풀이에 현지 조사를 통해 특수본풀이를 알고 있는 심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심방을 통해 특수본풀이들이 과거 제주도 곳에서 불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허궁애기본풀이>가 다시 채록되었는데 이는 특수본풀이가 우연히 조사된 것이 아니고 당시 심방들이 구연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는 두 편이 채록이 되어있는데 하나는 “오날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떠나는 여행담이며 다른 하나는 “원천강”이라는 여인이 왕이 되려는 남편을 죽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 본풀이는 심방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을 위한 신굿에서 불려졌던 본풀이로 심방의 점사적 기능이 부각된 일반적인 심방들의 신화라 할 수 있다.

<세민황제본풀이>는 두 편이 채록이 되어있는데 공통적으로 당나라 세민황제가 지옥에서 이승 사람 매일장상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선행을 베푸는 내용이다. 제의적으로 차사영가 절칠 때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서 이 본풀이를 부른다. 이 본풀이는 신앙민들에게 이승에서 선행을 베풀도록 하는 권선징악적 사고를 보여준다. 그리고 악인인 세민황제도 적선을 행하면 죄가 사한다는 것을 통해 죽은 자들의 악행을 산 자인 신앙민들이 굿을 통해 사함을 비는 행위와 같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저승에 간 허궁애기가 이승을 왕래하다 약속을 어겨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의적으로 차사본풀이 동방세기본 다음에 불려지던 것이다. 저승은 다시 가면 못 오는 저승관념

이 나타나며 이승과 저승의 불명확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굿이란 제의에서 심방을 통해 이승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다는 무속적 사고가 나타난다. 구성에서 어머니인 “허궁애기”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모정의 간곡함을 통해 굿판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들을 의식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굿에서 신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삼화로서 불려지거나 제의가 사라져 현재 굿에서 구연되지 않는 본풀이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본풀이가 소멸된 이유가 굿의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특수본풀이가 굿에서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한 제의에서 특별한 심방만이 부르고 있어 일반화되지 못하여 심방들간의 본풀이 전승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사회적으로 무속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고 있으며 단골들의 생활이 변화되어 더 이상 모시던 신들을 모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유입은 젊은층에 급격히 확산되어 제주도의 굿은 단절의 위기에 처해있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주도 특수본풀이가 다시 재위치를 찾고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서론

1.1. 문제 제기

이 논문은 제주도 특수본풀이로 분류된 본풀이들의 제의적 의의를 규명하고 제주도 무속에서의 재인식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풍부하게 구전되고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한다.¹⁾ 일반신본풀이는 큰굿에서 10여²⁾개 정도가 불리는데 우주창조부터 인간의 탄생, 죽음, 부귀 등 인간의 일생을 담당하는 다양한 신격들의 내력담이다. 당신본풀이는 각 마을을 수호하는 신들의 내력으로 한 마을에도 본향당 외에 직능이 다른 당이 한 개 이상 존재하고 있어 제주도 마을의 숫자보다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사성을 가진 것은 몇 개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의 계보나 신명, 신의 직능 등을 나열한 정도이다. 조상신본풀이는 집안 수호신으로서 그 집안의 단골심방만이 알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채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많이 조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풍부하게 구전되고 있는 본풀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 제주도본풀이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 연구하는 과정⁴⁾에 포함시키

1) 진성기, 〈본풀이편〉,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132쪽.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346-347쪽.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9쪽.

2) 필자가 2000년 4월에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큰굿에서 조사한 바로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스사만이본풀이, 문전본풀이를 하였다. 여기에 칠성본풀이가 추가된다.

3) 송당본풀이, 괴네깃당본풀이, 각시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서귀본향당본풀이, 토산알당본풀이, 토산웃당본풀이, 하천본향당본풀이, 내왓당본풀이 등이다.

4) 赤松智晟, 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4.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1995, 집문당.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지 않는 본풀이들이 있어 주목된다. 일명 특수본풀이⁵⁾라 불리는 것들로 현재 다른 본풀이에 비해 채록된 본풀이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 그러나 1930년대와 1960년대의 조사에서 채록이 되어 있는 상황을 통해 이 본풀이들이 심방들에게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특수본풀이는 채록 수가 극히 적으며 대부분 현재 제의에서도 불려지고 있지 않는 것들로 제주도 본풀이 분류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취급되어 연구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였다. 초기 연구자들도 제의를 알 수가 없고 신격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다른 연구자들도 그들의 연구대상에서 특수본풀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의 특수본풀이 연구의 한계가 조사의 지역적 편향성과 연구의지의 부재에 기인함을 인식하고 특수본풀이 전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현장을 통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현재 30년대와 60년대 채록 당시의 제보자들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영향을 받은 다른 심방들을 통해 특수본풀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조술생 심방이 활동했던 북제주군 한경면 지역과 서귀포 박봉춘 심방 집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특수본풀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제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제보자를 통해 특수본풀이들이 어떤 제의에서 불려졌고 어떤 신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다.

특수본풀이들은 현재 14편이 채록 되어있는 상황이다. 30년대 일인(口人) 학자들이 서귀포 심방에게서 채록한 것이 2편, 60년대 진성기에 의해서 채록되어진 것이 12편이다.⁶⁾ 이 본풀이들은 다른 본풀이에 비해 그 수가 적고 그 내용 또한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진성기, 《남국의 신화》, 아람출판사, 1965.

《제주도무속논고-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66.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5) 진성기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 처음으로 분류하였다.

6) <원천강본풀이>, <세민항제본풀이>는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편으로 특수본풀이는 총 12편이 된다.

서사성을 가진 것은 몇 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8편의 특수본풀이들은 현재 제의에서 불려지거나 제의를 알 수 있는 것들이라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서사성을 가졌으나 제의를 알 수 없는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⁷⁾본풀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중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는 30년을 격차로 두 번씩 채록이 되었으며 <허궁애기본풀이>도 2002년에 다시 채록되어 각편 비교를 통한 신격 및 제의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특히 다시 채록이 된 <허궁애기본풀이>는 현장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수본풀이의 연구는 이 본풀이가 제주도 본풀이의 사족(蛇足)이 아니라 제의에서 불려지고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신격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제주도 본풀이의 다양성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본풀이들의 소멸과 축소과정을 바탕으로 특수본풀이가 제의에서 왜 해체되었는가의 필연성을 규명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특수본풀이가 제주도 굿의 의례에서 불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채록도 몇 편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본풀이들이 의례에서 불려지고 풍부하게 채록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기존의 주장을 수용한 채 현장을 떠난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장주근이 처음 언급하였다. 원천강은 오행상서(五行相書)들을 저술한 당대의 복자(卜者)인데, 여기서는 도해역서(圖解易書)인 원천강화주역(袁天綱畫周易)을 말하는 듯하고, 신의 나라의 이름으로도 나타난다고 했으며, 달리 소설로도 무가로도 보이지는 않으나, 사찰들을 순방하고 전도했다는 데에서 불교의 복합 보급성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⁸⁾고 하였다.

7) 허궁애기는 허웅애기, 허웅아기, 허천애기 등으로 불린다. 진성기가 특수본풀이를 분류할 때 허궁애기로 처음 사용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허궁애기본풀이>로 사용하겠다. 단, 다른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서에 나와있는 단어와 구연자들이 발음은 그대로 옮겨놓는다.

현용준은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가 《조선무속의 연구》상편에 채록되어있는데 현재 곳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대상신의 직능도 알 수가 없다⁹⁾고 하였다. 이는 <원천강본풀이>를 본풀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초기의 연구자들은 역서(易書)로서 해석을 하거나 본풀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은 이수자¹⁰⁾이다.

먼저 <원천강본풀이>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의 진위여부를 가렸다. 박봉춘본이 영웅의 일대기적 서사구조, 부모 찾기 서사구조, 여로형 서사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조술생본은 탄생담이나 성장담, 공업담이 없는 일종의 에피소드, 삽화로 규정하여 박봉춘본을 원천강본풀이의 원래적 자료로 선택하였다.

“오날이”가 찾아간 원천강은 춘하추동이 있는 시간과 관련된 곳으로 신화적 인식의 표현이라 하였으며 “오날이”는 이러한 원천강을 주재할 수 있는 여신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원천강본풀이>가 제주도의 다른 본풀이인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안에서는 절이나 중과 관련이 있으며 점서(占筮), 복서(卜筮), 또는 점술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수자의 논문은 본격적으로 <원천강본풀이>를 연구하였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단순히 무가 형성의 영향관계를 따지는 데서 벗어나 <원천강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시간, 점복 등과의 관계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잊혀졌던 <원천강본풀이>가 이 논문의 신격 탐구를 통해 논의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본풀이는 현재 제주도 큰곳에서 행해지는 제의와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업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지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원천강본풀이>가 현재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에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특수본풀이의 기능, 소멸 등

8) 장주근, <설화편>,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362쪽.

9)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1쪽.

현용준 선생과의 2001년 6월 27일 전화통화를 통해 선생이 조사할 당시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지 않은 <원천강본풀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 본풀이가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10)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한국 신화의 본질과 위상》, 한국구비문학회 추계 학술대회, 1997.

과 연관된 시각이 부족하였다. 다른 특수본풀이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소멸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원천강본풀이>의 성격, 소멸의 과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서대석이 처음으로 다루었다.¹¹⁾ 설화가 서사무가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로 이 본풀이를 다루었는데 <세민황제본풀이>의 내용과 등장인물이 《당태종전》과 같다는 것을 들어 중국 《서유기》의 영향을 받은 《당태종전》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장주근 또한 강창문학(講唱文學)의 수입을 통한 《당태종전》과 <세민황제본풀이>의 형성과정을 추론하였다.¹²⁾ 이 글들은 <세민황제본풀이>가 중국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기존 자료에 얽매어 있어서 제의적 측면을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우를 범하였다.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해서 직접 채록한 학자인 진성기는 허웅애기를 통해 천상계와 지하계의 교통(交通) 관계를 논하였다.¹³⁾ 심방들의 주장을 통해 허웅애기가 억울한 귀신이며 양육신이라는 주장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나 더 이상의 논증이 없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김현선은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의 사례로 <허웅애기본풀이>와 <콩쥐팍쥐전>을 비교하였다. <허궁애기본풀이>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허웅애기본풀이>에 나와있는 콩대기팍대기를 다루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특수본풀이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극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하더라도 논자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한정되어졌다.

1.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기존 자료의 재해석과 새로운 자료를 소개, 정리, 발굴하여 제주도

11)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12) 장주근, <서사무가와 강창문학>,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366-368쪽.

13) 진성기, <도민과 신화>,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148-156쪽.

14)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경기교육논총4》,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1995.

특수본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먼저 특수본풀이가 처음 채록될 당시인 1930년 전후의 제주도의 무속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1929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사된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본풀이의 광범위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 서부의 무속 붕괴 현상이 카톨릭의 유입과 관계 있음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조사를 통해 카톨릭의 포교 상태와 신앙민의 상황을 알아보았다.¹⁵⁾ 또한 기존 자료에 특수본풀이로 채록된 12편의 본풀이들의 자료적 가치를 살펴 이 글에서 논의가 가능한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12편의 본풀이들의 제의를 찾아 분석을 시도하겠다.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특수본풀이들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 조사 및 구연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특수본풀이가 채록될 때의 구연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구연자의 구술능력은 자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연자들의 무가계 및 입무과정 등을 다룰 것이다. 특히 현장 조사를 통해 1930년대 구연하였던 서귀포 박봉춘 심방의 인적 사항과 무가계를 살펴보고 그의 며느리에게 전승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1960년대 구연한 조술생 심방과 같이 굿을 하였던 한경면 심방을 통해 특수본풀이들의 구연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의 각편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허궁애기본풀이>의 새로운 각편을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새로운 각편의 채록은 미비한 특수본풀이 연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불려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연히 채록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던 그동안의 학설을 뒤엎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수본풀이의 제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신본풀이와 특수본풀이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네 번째로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의 무속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궁본풀이>의 무조신화와는 달리 무조신격이 일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무속신화적 성격의 퇴화과정과 저승과 이승의 재인식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특수본풀이가 제의에서 변화하고 소실되는 과정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제의 내부적으로 특수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의 경쟁 관계를 규명하고 특수

15) 2002년 3월 29일 제주도 교구청을 방문하고 4월 1일 한경면 신창성당을 방문 조사하였다.

본풀이가 어떠한 이유에서 소실되었는지를 추론할 것이다. 제의 외부적으로는
제차가 점점 간소화 되가는 이유를 살펴보고 현재 중요 본풀이들의 화소들이 불
려지지 않은 경향을 살펴보겠다.

2. 제주도 본풀이의 전승현황

2.1. 제주도 무속의 변화

선행연구자들은 특수본풀이를 기존의 제주도 본풀이와는 관계없는 본풀이로 생각했다. 이는 기존의 조사가 특정 지역의 특정 심방의 굿판을 정형화한대서 기인한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다양한 굿판을 형성하고 있어 불러지는 본풀이가 다를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외래문화가 수용되어 변화를 겪은 후의 현재 제주도의 굿을 전부인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나마 변화를 겪기 이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 무속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제주시,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서귀포에 이르는 동쪽 지역으로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편중된 조사 활동은 동쪽 지역이 제주도 무속의 중심지라는 생각에 기인한다. 그리고 현재 무속의 연행도 동쪽지역에서 많이 행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주도 동쪽은 무속제의가 활발하고 서쪽은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애초부터 그러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에 대해 1929년의 제주도 무속 조사 현황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구체적으로 조사된 제주도 무속의 상황은 현재의 제주도 무속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특수본풀이들이 채록되던 시기의 무속현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태종 16년 이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구분되었다. 이런 행정구역의 구분은 생활권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정의현의 맨 오른쪽 지역인 성산 지역과 대정현의 맨 왼쪽 지역인 한경면 지역은 서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 무속의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세 지역의 심방들은 서로가 최고임을 자부하면서 자신들끼리의 속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성안(제주목) 심방들은 언담 및 목청이 좋고 춤사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허우대굿, 언청굿이라고 부른다. 구좌읍 이중춘 심방이 거울보고 춤사위를 연습했다 하니 이런 면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¹⁶⁾ 정의 심방들은 춤

출 때 잘 된다고 해서 돌랑굿이라 칭한다. 돌랑이란 것은 뛰는 모습을 칭하는 제주도 의태어이다. 또한 토산본향당 같은 센 본향당이 있어서 본향본을 잘 풀어야 한다고 해서 본향굿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대정 심방은 연유를 잘 닦고 꼼꼼하게 뿌리를 잘 말한다해서 해서 연유굿, 불회공이라고 한다. 이렇듯 세 지역에서 자기 지역만의 무속의 특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아래 표는 1929년 9월말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사된 《생활상태조사-제주편》이다.¹⁸⁾ 총 인구수가 조사되어 있어서 무속인의 비율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1: 각 지역 인구 수 및 무속인 비율 자료>

지역 (면) 분류	제주 (제주)	신우 (애월)	구우 (한림, 한경)	대정 (대정)	중 (안덕)	좌 (중문)	우 (서귀)	서중 (남원)	동중 (표선)	정의 (성산)	구좌 (구좌)	신좌 (조천)	계
女巫	45	18	34	8	11	3	14	4	10	12	9	19	190
賣卜者	26	8	14	4	2	1	5	1	2	1	3	6	74
祈禱者	140	37	56	25	32	15	18	13	15	10	23	28	416
총무 속인	211	63	104	37	45	19	37	18	27	23	35	53	672
인구 수	35,011	21,783	30,504	15,002	9,659	9,865	14,058	12,414	7,265	12,482	20,864	12,214	205,609
무속 인 비율	0.602	0.289	0.34	0.246	0.465	0.192	0.263	0.144	0.371	0.184	0.167	0.433	0.326

※비고 祈禱者중에는 巫男(巫女와 완전히 같은 자)를 포함한다.¹⁹⁾

16) 1999년 12월 21일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이중춘 심방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7) 제주목에서는 목소리가 좋고 춤사위가 좋아야 큰심방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정의 현에서는 센 토산당이 있기에 이를 잘 풀어야 하며 대정현에서는 제의에 나오는 본풀이들을 잘 풀어야 큰 심방으로서 대접을 받는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지역적 특색으로 남아있어 이를 종합 연구한다면 제주도 무속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 조선총독부, <문화>, 《생활상태조사 제주도편》, 조선인쇄주식회사, 1929, 101-112쪽, 154-155쪽. 제주도에서 무업을 하는 자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을 필자가 도식화하였다.

19) 팔호안의 지명은 현재 지역명이다. 원본의 일본어를 번역하였다.

먼저 분류를 살펴보자 여무, 매복자, 기도자로 구분한 것에서 여무는 지금의 예편심방²⁰⁾을 말한다. 매복자는 현재의 점쟁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도자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기도자는 기도자와 무념으로 나눈다. 기도자란 단어를 사용하였음은 조사자의 눈에 이들이 악기반주나 춤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는 형식으로 무업을 행하는 자들로 비취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이들은 작은 곳이나 비념을 주로 행하는 삼승할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념은 무녀와 완전히 같은 자라 하였으니 현재의 스나이 심방임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기도자의 숫자가 무녀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들 중 삼승할망과 스나이 심방을 반반씩 나눈다 해도 스나이 심방이 예편심방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만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현재에도 고향에서 남자심방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절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무속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무속인 비율도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다. 즉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무속인도 많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면지역을 살펴봐도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은 무속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섬의 서쪽인 한림, 한경면 지역이 인구도 많고 무속인 수도 평균이상으로 많게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무풍이 약한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어찌보면 송당이 있는 구좌지역이 인구에 비해 평균이하의 무속인이 살고 있어 의외임을 보여준다. 안덕과 표선은 적은 인구에 비해 높은 무속인의 비율을 보여 무풍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도표를 통해 우리는 당시 제주시를 중심으로 많은 무속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섬의 서쪽인 한림과 한경 지역도 예외 없이 무속이 흥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의 진성기의 조사를 통해 보면 당시 한경면 지역의 심방은 29명으로 제주시를 제외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살고 있어 당시까지만 해도 무속의 유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무속의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20) 제주도에서는 여자무당을 예편심방이라 부른다.

먼저, 표선, 구좌의 송당본, 토산당본 같은 토속성이 강한 당신본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토속성이 강한 당신본풀이들은 지역민을 한데 묶고 무속연행을 유지시켜주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토산 알당본풀이 같은 경우는 모계를 통해 강한 전파를 보여 세력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본풀이가 없다시피 하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카톨릭의 유입은 서부지역 무속의 붕괴를 가속화하였다. 물론 기독교나 불교의 영향도 함께 거론할 수 있으나 불교는 무속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여신도들은 무속과 불교 모두에서 신앙활동을 하기도 한다.²¹⁾

한불조약 이후 1899년 제주도에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후 한경면 지역에는 신창지역에 1935년에 신창공소가 생기면서 포교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1952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1954년 한림본당이 설립되면서 제주도 서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신창지역의 신자가 2,200여명이며 한림지역은 1,7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동부지역인 성산포가 1973년, 남원과 표선이 1997년, 조천이 1999년 본당으로 승격하는 것과는 최소 20여 년에서 최대 40여 년의 차이를 보이며 신자 수는 3배에 이른다. 특히 제주도 본향당의 무조격인 송당(松堂)이 있는 구좌지역은 본당조차 없는 상황이다.²²⁾

이런 상황은 동쪽 지역이 아직도 토속적 종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데 반해 서쪽은 새로운 종교인 천주교가 유입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에 깊이 퍼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반자체가 외래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당신앙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톨릭의 유입이 신앙형태를 역전시킨 상태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현재 동서 무속의 불균형 상태는 더욱 심화되어 서쪽에서는 굿판이 줄어들고 심방수도 현격하게 줄어든 상태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유입은 제주도 무속을 전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단골층의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80년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주부들이 단골로 마을의 당을 찾아 가정의 복을 구하고 액을 물리쳤으나 현재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단골들이 무속신앙을 믿고있어 얼마 없어

21) 기독교는 전도적으로 고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어 지역적 편향성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2)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빅벨, 2001.

제주도 무속의 단절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2.2. 제주도 본풀이의 분류

1929년도의 제주도 무속의 전반적 상황을 통해 제주도 무속이 전지역을 통해 고루 행해지고 있었으나 1900년 초의 카톨릭의 유입으로 1970년대 이후 현재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급격한 보급은 제주도 무속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본풀이들이 학자들에 의해 채록이 되어왔다. 1930년대 일인학자에 의해 처음 채록이 시작된 제주도 본풀이들은 1950년에서 1970년대 사이에 장주근, 현용준, 진성기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조사한 본풀이가 현재 제주도 무속 연구의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채록한 제주도 본풀이들을 나름대로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구분이다. 이 구분은 현용준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²³⁾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분법이다.

일반신본풀이는 자연현상이나 인문현상을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반적인 신들의 내력담²⁴⁾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동일하게 불리며 큰 심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본풀이이다. 이 본풀이들은 집에서 하는 큰굿에서 대부분이 불리며 그 서사내용이 방대하다. 간략하게 일반신본풀이 이름과 내용을 살펴보겠다.

- ① 천지왕본풀이- 천지개벽 후 천지왕의 두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인간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으로 굿의 처음 부분인 초감제 때 불려진다. 본토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기도의 ‘시루말’이나 함경남도의 ‘창세가’가 있다.
- ② 삼승할망본풀이- 명진국할머니가 동해용왕 따님애기와의 꽃피우기 대결의

23) 1963년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26호》에 발표한 내용으로 현용준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에 전문이 실려있다.

24) 현용준, 〈제주도 무속신화의 제상〉,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9쪽.

승리를 통해 산육신이 되는 내용으로 불도맞이 때 불려지며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③ 초공본풀이- 젓부기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무조신(巫組神)이 되는 이야기로 심방들은 집안에다 당주²⁵⁾를 차려놓고 이 신을 모신다. 본토의 제석본풀이와 구성이 같다.
- ④ 이공본풀이- 한락궁이가 생명꽃을 관장하는 서천꽃감관(西天花監官)이 되는 내용으로 본토의 <안락국태자경> 과 내용이 같다.
- ⑤ 삼공본풀이-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가 부자가 되어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으로 전생의 인연에 관한 것이다. 본토의 서동설화, 심청설화 등이 혼합된 형태이다.
- ⑥ 차사본풀이- 인간세상의 강님이가 염라대왕을 잡아오기 위해 저승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염라대왕에게 혼을 빼앗겨 저승차사가 된다. 함경남도 무가인 '김가제곳'과 같은 구성이다.
- ⑦ 지장본풀이- 지장아기가 고아로 힘들게 살다가 새가 되는 내용으로 사악함을 쫓는 제차인 새드림에서 불려진다.
- ⑧ 맹감본풀이²⁶⁾- 사만이가 산에 버려진 백골(白骨)을 잘 모셔 명부사자(冥府使者)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피해 생명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액막이 제차 때에 액을 막기 위해 불려진다. 함경남도의 혼쉬굿과 같은 구성이다.
- ⑨ 세경본풀이- 조청비가 문국성과 정수남이와 함께 농경신이 되는 내용으로 중국에서 전해오는 양축설화와 같으며 함경남도의 문굿과 구성이 같다.
- ⑩ 문전본풀이- 일곱 형제가 처첩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집안 수호신이 되는 내용으로 본토의 칠성본풀이와 구성이 같다.
- ⑪ 칠성본풀이- 장설룡의 딸이 임신하여 제주도로 쫓겨와 뱀이 되어 부를 관장하는 신이 된다는 내용이다.

간략하게 일반신본풀이들을²⁷⁾ 살펴보았다. 그 내용이 세상의 개벽에서 인간의

25) 당주상이라 하여 집안의 방에다 간단한 제장을 차려놓고 삼명두-신칼, 산판, 요령-를 모셔놓고 아침마다 술을 올리고 향을 피운다.

26) 스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한다.

27) 이외에 장주근과 현용준은 원천강본풀이와 세민황제본풀이를 일반신본풀이로 분류하였으나 제의와 신명을 알 수 없다고만 하였으며 더 이상 논의가 없고 논자가 이 논문에서 다루기로 하였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장주근은 영감본풀이와 군웅본풀이

탄생, 삶, 죽음에 이르는 일생의 문제를 다양한 신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불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 제주도의 향토적인 내용보다는 본토의 무가나 설화와의 친연성이 보이고 있어 자생적 본풀이라기 보다는 본토의 영향을 수용하여 변형시킨 본풀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에 반해 당신본풀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락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松堂里)는 제주도 당신앙의 근원으로 불려지는 곳으로 송당본향당의 수렵 남신과 농경 여신의 갈등은 문명발달의 과정을 보여 주는 본풀이이다. 또한 탐라국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도 본래 무가이고 당본풀이었으리라는²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신본풀이에서 당신들이 활동하는 무대는 한라산, 바다 등 토착적 지명들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신앙민들을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로 구분하여 신과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성씨들을 상단골, 다음을 중단골, 하단골로 구분하여 마을의 설촌(設村) 배경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과 씨족과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 아직도 당본풀이를 풀 때마다 단골의 위계를 정해준다. 당신과의 관계는 모계를 통해 끊임없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²⁹⁾ 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당제일에 맞춰 당을 찾는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근본신인 본향당신의 내력을 말하는 본향당신본풀이가 있고 직능에 따라 중산간 지대에는 수렵신인 ‘하로산뜨’가 있으며 바닷가에는 선박, 어부의 신인 ‘돈지당’, ‘개당’이 있으며 전도적으로 산육신인 ‘할망당’이 있고 부분적으로 피부병신인 ‘일뿔당’, 뱀신인 ‘여드렛당’, 도깨비신인 ‘영감당’ 등이³⁰⁾한 마을에 두세 개 이상 산재해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당신들이 분포하고 불려지지만 현재 서사성을 가진 것은 몇 편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신명, 제일, 제물과 기원만을 말하고 있어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당맨심방³¹⁾이 당곳 및 개인 곳에서 구연하나 유능한 심방들은 많은 당신본풀이

도 일반신본풀이로 분류하였으나 영감신은 도깨비 신으로 일반신, 조상신, 본향당신, 해신당신에서도 불려지고 있어 일반신격만으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웅본풀이도 구체적인 서사성이 없어 다루지 않는다.

28) 장주근, <구전신화의 문헌신화와 과정>,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집문당, 1995.

29) 토산알당본의 경우는 모계를 통한 전파가 가장 뚜렷한 당본풀이이다. 이로 인해 토산출신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당신이 모셔진다.

30)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44-45쪽.

이 직능적 기능을 가진 신들은 본향당신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 신을 필요로 하는 마을에서 가지 갈라 갈 경우 직능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를 습득하여 다른 마을로의 활동영역을 넓히기도 한다.

조상신본풀이는 집안 내지 일족(一族)의 수호신 내력담으로 모시는 신을 보통 일월조상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송씨 집안의 “술할망”을 보면 이 집안에서 해녀 할머니가 바다에서 술을 주워오니 그 날 밤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나를 잘 위하면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하여 잘 위한 결과 부자로 살게되었으며 그 후로 고팡³²⁾에 안칠성으로 모시고 명절과 제사 때마다 메를 올린다고 한다.³³⁾ 이런 이야기는 개인 굿을 할 때 일월맞이 과정에서 조상신을 즐겁게 놀리고 조상신본풀이로 불린다. 이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 내지 일족에서만 전승되기에 그 집안의 단골심방만이 알고 있다. 이 단골심방은 같은 마을의 당맨심방이 하기도 하지만 지역과 관계없이 단골과 단골심방의 관계를 맺고 한다. 필자가 조사한 경우에³⁴⁾ 1981년도에 집안에 우환이 있어 굿을 한 단골이 20년 후 다시 굿을 하려 하니 당시의 단골심방이 돌아가시고 없자 당시 같이 굿을 했던 타지역 심방을 다시 불러 다시 굿을 하였다. 이런 모습에서 단골은 어떻게든 자기 집안과 관계를 맺은 심방만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더욱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계로 조상신본풀이는 수집이 어려워 현용준이 15편, 진성기가 12편³⁵⁾을 채록한 정도이다.

이렇게 제주도 본풀이들이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본풀이들이 있어 주목된다. 일명 특수본풀이라는 것으로 진성기에 의해 1960년대 처음 분류되었다.³⁶⁾ 열두 개의 본풀이들을 특수본풀이라고 분류하였지만 더 이상의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조사자들이 이 특수본풀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의와 신격을 알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 본풀이들을 예외적인 본풀이로 구분해 버릴 수 있을 것이다.

31) 당에 소속되어 있는 심방을 말한다. 한 마을에는 본향당을 맨 심방이 꼭 한 명씩 있어 마을에서 당제를 할 때 굿을 주관한다.

32) 庫房을 일컫는 제주방언이다. 안방 뒤편 방이며 곡식을 저장한다.

33) 장주근, 〈제주도 무속 개관〉,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46쪽.

34) 2000년 4월 18일-22일간 남제주군 남원읍 위귀리 김○○씨의 사당클굿을 조사하였다.

35)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86-858쪽.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91-696쪽.

36)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의 구성을 보면 일반본풀이, 신당본풀이, 특수본풀이, 초감제·하정·푸다시, 기타, 개설 순으로 되어있어 제의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1930년대에 같은 본풀이 두 편이 일인학자들에 의해 먼저 채록되어있어 특수본풀이가 우연히 불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본풀이들이 제주도 무속에 엄연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조사 결과 현재 이 본풀이들을 알고 있는 심방이 있어 그 사실을 더욱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진성기가 명명한 특수본풀이들은 어떤 제의에서 어떻게 불려졌을까?

2.3. 특수본풀이 자료의 재검토

특수본풀이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간략하게 언급하였을 뿐이지 이 본풀이 어떤 제의에서 어떤 신격으로 불려졌는가는 기존의 연구로는 알 수가 없다. 이에 필자는 현재 특수본풀이라 불려지고 있는 본풀이들을³⁷⁾ 도식하여 위의 의문점들을 살펴보겠다.

<표2: 채록된 열두 개 특수본풀이 자료>

연구 본풀이	제의와 관련성	채록지역 심방	내 용 요 약
세민 황제본	?	한경면 조술생	저승에 간 세민황제가 매일, 장상의 도움으로 이승빔을 갚는 내용
		서귀포 박봉춘	
동방 세기본	차사 본풀이	한경면 조술생	삼천년 사는 동방세기가 강림의 피로 잡혀 저승으로 끌려가는 내용
원천 강본	?	한경면 조술생	원천강의 남편이 하늘의 왕이 되려하나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내용
		서귀포 박봉춘	오날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떠나는 내용
허궁 애기본	?	한경면 강을생	콩대기가 계모와 팻대기에 의해 죽음을 당하나 다시 살아나 저승과 이승을 왕래하다 잡혀가는 내용

37) 진성기가 채록한 열두 개와 박봉춘이 구연한 두 개 본을 모두 다루겠다. 일인학자들은 제주도 무가조사에서 박봉춘본을 채록만 하고 더 이상의 분류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박봉춘본 중 진성기가 채록한 본과 본풀이 이름이 같고 내용이 비슷한 두 개의 본풀이를 같은 특수본풀이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영감본	영감 놀이	한경면 조술생	진치백의 도깨비 삼형제가 송영감을 부자 시켜준 후 송영감의 피로 쫓거나 제주로 들어오는 내용
웃당본 알당본	토산 본향당	서귀읍 박생옥	표선면 토산리의 당본풀이로 웃당본은 유아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여신의 내력담이며 알당본은 뱀신에 관한 내용
삼두 구미본	?	한경면 이춘자	三頭九尾가 나무꾼의 딸들을 후처로 삼아 두 딸을 잡아먹었으나 막내딸이 피를 내어 무쇠, 달걀, 버드나무로 죽이는 내용
산신본	산신 놀이	제주시 강제길	마사기총으로 사냥을 함. 서사성 없음
조왕본	조왕제	제주시 김만택	초덕, 이덕, 삼덕 조왕신 열거, 서사성 없음
용왕본	요왕 맞이	제주시 김오생	동서남북 용왕신 열거. 서사성 없음
열두 선왕본	영등 맞이	애월면 이상문	열두 배신을 열거. 서사성 없음
십이 대왕본	시왕 맞이	제주시 김오생	지옥 12대왕 열거, 서사성 없음

위의 12개의 특수본풀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본풀이들이 기존의 제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동방세기본>은 <차사본풀이>에서 현재에도 불려지고 있으며 <영감본>은 신격이 도깨비로 <영감본풀이>에서 불려지고 있다. <웃당본>과 <알당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에서 단골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토산당본풀이>이다. <산신본>은 중산간 지역의 축산을 행하는 지역에서 채록되어진 본풀이이며 <조왕본>은 부역신인 조왕할망에게 비는 고사 때 흔히 불려지고 있으며 큰곳에서도 곳이 끝나갈 때 행해진다. <용왕본> 및 <열두선왕본>은 영등맞이 때 불려지고 있으며 <십이대왕본>은 죽은 자의 영혼천도를 위한 곳인 “시왕맞이” 때 불려지는 것으로 저승을 지키는 열두 대왕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특수본풀이로 분류된 것들 중 여덟 개의 본풀이는 현재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거나 그 신격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이 서사성이 없이 신명만을 나열한 것들로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그 신격이 토산본향당본을 제외하고 일반신본풀이에 등장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제주도 토착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향당본풀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풀이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세민황제본>, <원천강본>, <허궁애기

본>, <삼두구미본>이다. 이들은 제의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제의를 유추할 수 있는 서사성이 있어 논의를 통해 신격 해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삼두구미본>은 제주도의 이장 풍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제주도에 서는 이장하는 것을 ‘칠리한다’라고 한다. 묘를 옮길 때에는 파버린 묘에 반드시 달걀과 버드나무, 무쇠를 넣어야 하는데 묘를 지키는 삼두구미(三頭九尾)신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토신제 때 삼두구미신께 옥황으로 올라가시라는 축을 고한 후 시신을 100보 밖으로 옮긴 후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이후 삼두구미 신이 내려와 시신을 찾아 버드나무에게 물으면 버드나무는 뻗뻗하게 모른다하고 무쇠는 딱딱하게 모른다하며 달걀은 코, 눈, 입, 귀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한다. 삼두구미신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어 후손들은 동티를 면할 수 있게 된다.³⁸⁾ 이러한 독특한 이장 관습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이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며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삼두구미신의 이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단지 묘를 지켜주는 신으로 알고 있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무덤과 관련된 신의 개념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삼두구미본풀이>가 이장습속에 영향을 준 것인지 이런 이장습속이 <삼두구미본풀이>를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줬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본토나 제주도 전역에서 이장 풍습이 있으나 이런 독특한 행위는 제주도에만 있어 주목된다.

<삼두구미본풀이>와 관련된 설화가 남제주군 안덕면 지역에서 “와라진 귀신”이란 이름으로 채록이 되었다.³⁹⁾ 귀신의 이름만 틀린 뿐 서사단락은 <삼두구미본풀이>와 같다. 와라진 귀신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괴물로 공통적으로 세 자매와 결혼을 한다. 여기서는 변신을 하여 가난한 할아버지의 손녀딸들과 결혼을 한다. 그 결혼의 조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람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 고기를 먹지 못한 첫째와 둘째 손녀는 죽음을 당하나 막내 손녀는 괴로써 괴물을 속이고 안심을 시킨다. 그리고 괴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버드나무임을 알아낸다. 버드나무는 <삼두구미본풀이>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괴물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다. 버드나무로 괴물을 처치하고 그동안 죽어있던 사람들을 모두 구한다.

38) 진성기, <제5장>,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202-206쪽.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구비문학대계 9-3》, 고려원, 1983, 624-633쪽.

두 이야기를 통해 보았을 때 “삼두구미신”이나 “와라진 귀신”은 무덤을 보호하는 신이라기 보다는 시신을 먹는 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장례 풍습에서 시신을 묻고 관 위에 동심절이란 한지로 만든 인형을 놓는다.⁴⁰⁾ 원혼의 상질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무속제의에서나 가능하지 죽은 자를 묻으면서까지 이를 보일 필요는 없다. 죽는 자들이 모두 원혼을 갖고 죽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시신을 괴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이는 우리의 풍습에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 관념이 일맥상통한다.

무리하게 소급하여 ‘철리’의 과정에 무당이 개입되는 어떤 제차가 있었을 것이며 <삼두구미본풀이>가 불려졌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나 너무 막연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삼두구미신은 시신을 먹는 괴물로 보아야 하며 <삼두구미본풀이>는 괴물을 물리치는 제주도만의 풍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네 개의 특수본풀이 중 <삼두구미본풀이>를 위의 이유로 제외를 시킨 결과 세 개의 본풀이만 남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세 개의 본풀이들을 통해 특수본풀이의 제의적 관련성을 살펴보겠다.

40) 동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원혼의 상질물로서의 기능이다. 무속에서 시왕맞이 때 영혼들에게 주는 “영혼고상”이라는 옷에 동심절을 넣어 제의를 행한 후 옷을 태울 때 동심절을 푼다. 그리고 상례에서 하관할 때 관 위에 올려 사자의 한 뿔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동심절이 시신의 대용물로 괴물이 동심절을 시신으로 착각하여 동심절만 갖고 가고 시신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다는 설이다.

3. 세 특수본풀이 분석 및 제의적 관련성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이 본풀이들을 구연한 심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연자의 나이, 성별, 무가계(巫家系), 무업(巫業)의 습득과정 등은 본풀이 자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기에 이루어진 본풀이 조사는 자료 채록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구연자에 대한 사항은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성별과 이름 정도를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수본풀이를 구연한 심방들에 대한 사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필자는 특수본풀이를 구연한 박봉춘 심방, 조술생 심방, 강을생 심방, 오인숙 심방에 대한 사항을 밝히도록 하겠다. 박봉춘 심방과 조술생 심방은 <원천강본풀이>와 <세민황제본풀이> 모두를 각각 구연하였으며 강을생 심방과 오인숙 심방은 <허궁애기본풀이>를 구연하였다.

(가) 박봉춘 심방을 조사한 사람은 일인학자인 赤松智城·秋葉隆이다.⁴¹⁾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1930~1933년 사이에 서귀포 박봉춘 심방을 조사하였다. 필자가 박봉춘 심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 지역상으로 서귀포시 정방동에 거주하였음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의 조사 기록에는 서귀포 심방으로 나와 있는 것이다. 그가 태어난 해는 1901년(辛丑年)이며 그의 나이 30대 초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인 학자들이 박봉춘 심방에게 본풀이 구연을 부탁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박봉춘 심방은 21대째 예촌당을 댄 무가계이다. 그의 조상이 제주로 입도(入道) 할 때부터 대대로 심방일을 하였더니 그의 무가계는 제주도 제일의 무가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정통적인 심방의 피를 타고난 박봉춘을 일인 학자들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봉춘 심방의 무가계는 예촌⁴²⁾당본풀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조사된 제주도 당본풀이 중 예촌당본풀이에 그의 무가계와 관련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41) 赤松智城·秋葉隆, 沈雨晟畝畝, <濟州島神歌>, 《朝鮮巫俗의 研究》, 東文選, 1991.

42) 현재 예촌 마을은 신례리(新禮里)와 하례리(下禮里)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진 상태이다.

(가) 할로영산(漢擎靈山)서 솟아나신 백관님(百官-) 강남천주국(江南天子國)서
 솟아난 도원님(都元師), 칠오름서 솟아난 도병서(都兵使). 저심가민 처서
 관장(差使官長). 이심오민 병서또(兵使-)
 혼담 넘어 구렁뚱루 서당한집 일똥또는 요듭아기단마을청.
 못거리 주애하당 지리태장 허좌수(許首) 상마을 허자바기 하마을 삼천벵
 맏도(三千兵馬-).
 박씨(朴氏) 부두천명 거느리옵던 토지관(土地官)한집.
 하로산배관님(漢擎山百官-)하고 강남천주국도원님(江南天子國都元師)하고
 칠오름도병서또(-都兵使-)가 조노깃한집(甫木本鄉堂神)하고 바독 내기를
 하여 이기는 자(者), 성(兄) 헝기로 하고 바독을 뛰난 백관또(百官-)가 이
 겨 성(兄)이 돼고 활을 쏘아 살(失)지는 딜로 예촌(禮村)을 츠지 흡데다.
 본향한집(本鄉-)은 바독을 뛰난 보난 박씨(朴氏)가 지나가난 당하니로 샅
 안 데데(代代)로 위흡데다.

(나) (전략) 예촌본향(禮村本鄉神)은 식 어른이 앓아 바독을 뛰엄더니 미령박씨
 (密陽朴氏)가 앞으로 지나가난
 『너는 어떤 인간이나?』
 『난 미령박씨(密陽朴氏)웨다.』
 『우리덜이 좌정(坐定)홀 딜 알 수가 엇겠느냐?』
 『나도 이제사 오는 질이라노난 잘 모르오나 알아보겠읍네다.』
 알아판 와서
 『비야기된맛이 좌정홀 만흡네다.』
 『그러면 그디 내 좌정홀 레이니, 당하니로 그엉허여그베 상여촌(上禮村)
 하여촌(下禮村) 상여돈(上孝敦) 하여돈(下孝敦)을 츠지허여곤 버을어 먹으
 라.』
 (영)? 허여 미령박씨(密陽朴氏)가 데데손손(代代孫孫) 당하니로 위흐는 신
 당입네다. (후략)⁴³⁾

43) 현용준, <당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730~731쪽. (예촌본향
 당본풀이), 736~737쪽(예촌·보복·효돈·토평 본향당본풀이).

(다) 옛날 활락산으로 솟아난 백관님은 큰성이고, 도오님은 셋아시고, 조죽인 말쑤하시우다.

궂인도또에서 시성제라 바둑을 두다가 백관님이 바둑에 이겨부난 큰성이 되엿수다.

백관님은 활쏘기로 바란 느료오란 예춘을 찌지흐엿수다.

그 때에 쌀이 박씨 집에 늠아드난 이 담은 박첩이서만 맵네다.⁴⁴⁾

(라) 예춘본향 좌정협서. 이제 산 앞 산 뒤 나무 뺏고 훌어진 신우협전이 제주 녁형 입대헌 조상은 여 오늘은 삼천백매 탕 산 앞 산 뒤 돌단 물을 다 저 삼천백매또서 물발을 뿌사 꺾어지난 물 우이서 즙을 자는 산신전 산신백관님이 꿈에 선몽허기를 널라그네 신하여래 예춘강 채받아담 을최짓고 삼맷디 지엄 예춘본향 좌정허라 셋아덜랑 불목리 조죽이강 좌정허라 죽은아덜랑 위미리랑 좌정허라 삼천백매또 예춘본향 한집님은 월광단에 조화허고 아광단에 조화허고 노단착엔 황해물색 청매를 걸치고 원착손에 월광단 백매를 흰 월광단 양단 걸치고 해연 7월제 되민 열나흘날 7월 마플림 대제일 받음네다. 영등2월 되민 초여드래 영등굿 합니다.⁴⁵⁾

이 본풀이들을 통해 밀양(密陽) 박씨가 예춘에 좌정한 하로산백관님(漢孿山百官)을 모시고 대대손손 당하니⁴⁶⁾를 하게 되는 운명을 지니게 됨을 알 수 있다. 박봉춘이 서귀포에 거주하였지만 박봉춘의 무가계는 위 본풀이에서도 나왔듯이 남제주군 남원읍 예춘 마을을 기반으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대대로 당맨 심방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박기석 심방이 집안의 종손으로 입도(入島) 이후 박기석 심방까지가 직통으로 연결되어있으며 박봉춘 심방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다. 연장자인 박봉춘 심방이 먼저 당을 매었다⁴⁷⁾가

44) 진성기, <당본풀이>,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491쪽(신례본향당본풀이).

45) 필자가 2002년 3월 31일 예춘당맨 심방 이인옥심방에게서 채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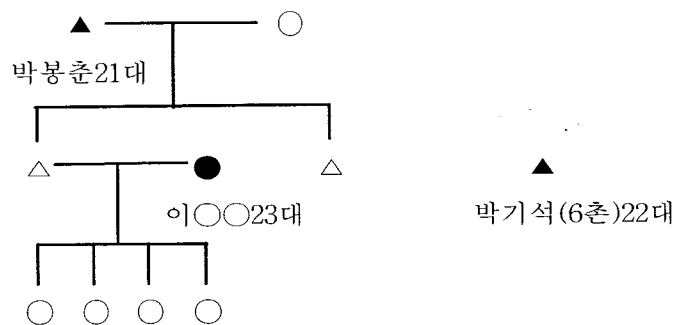
46) 심방에 대한 별칭으로 당하님은 당(堂)+ 하님으로 제주도 본풀이에 집안 일을 하는 하인을 뜻인덕이정하님이라 부른다. 고로 하님은 하인을 말한다. 따라서 당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사제자인 심방을 부르는 말이다.

47) 진성기, <신당과 당신>, 《제주도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993, 168-169쪽.

1957년에 돌아가시자 그의 5촌 조카인 박기석 심방이 22대째 당을 매었다가 돌아가셨다. 지금은 박봉춘의 며느리가 당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⁴⁸⁾ 박봉춘의 며느리 또한 나이가 들었으며 오랜 동안 허리 병을 앓아온 상태라 박씨 가문의 무가계는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특정 가문이 특정 당을 매는 경우는 보목리 당을 고씨가, 위미리 당을 한씨가 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촌 당본풀이에 의거한다. 예촌리 당맨심방에 의하면 밀양박씨 삼 형제가 제주도에 입도하여 큰 형은 예촌당을 매고 두 번째는 성을 고씨로 바꾸고 보목리 당을 매고 막내는 한씨로 바꾸고 위미리 당을 매는 심방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성을 가진 심방이 이당을 맬 경우 급사한다고 하니 이 당들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 믿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조사자들이 박봉춘을 알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보통 심방의 전성기인 50대인 57살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아쉽게도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는 2년 후인 1959년에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봉춘 심방의 며느리가 대를 이어 당을 매고 있어 그녀가 특수본풀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녀를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박봉춘 심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박봉춘 심방이 심방일을 하는 것을 며느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⁴⁹⁾ 따라서 그녀는 박봉춘 심방에게서 무구만을 물려받았다고 한다.



<표3: 박봉춘 심방 무가계>

48) 2002년 3월 31일 현지 조사를 통해 박봉춘의 며느리인 이○○ 심방을 만나 조사했다.

49) 박봉춘 심방은 곳이 있으면 무구를 들고 며느리 몰래 뒷담을 넘어 다녔다고 한다.

(나) 조술생 심방은 1906년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1리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한경면 지역은 무속이 많이 쇠퇴한 지역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폈듯이 조술생 심방이 심방 일을 할 당시에는 그러하지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조술생 심방의 딸과 전화 인터뷰를 한 바로는 그녀의 가계는 무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다.⁵⁰⁾ 하지만 조술생 심방 밑에서 무업을 배운 심방⁵¹⁾에 의하던 조술생 심방의 5촌 당숙이 책불⁵²⁾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설(一說)에는 조술생 심방의 어머니가 조술생 심방을 임신했을 때 무구를 주었다는 얘기도 있어⁵³⁾ 아무런 관련 없이 무업에 입무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제시대 남편이 도일(渡日)한 후 호구지책으로 심방 일을 하게되었다 한다. 그의 심방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림읍 한수리 출신의 남무였다고 한다. 다행히 총기(聰氣)가 있어서 다른 심방들의 굿을 잘 따라했고 나중에서는 한경면 지역에서 조술생 심방을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한다. 늙어서는 무업(巫業)을 그만 두었다가 88세가 되던 해 1997년 9월 8일에 돌아가셨다. 그녀의 딸은 무업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 조술생 심방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와 <세민황제본풀이>는 그녀가 56세인 1961년에 채록되었다. 필자가 조술생 심방 밑에서 굿을 함께 했다는 변○○ 심방을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⁵⁴⁾ 그녀는 조술생 심방에 대한 나의 질문에 ‘큰심방’이라고 첫 마디를 내뱉었다. 또한 한경면은 뿌리 있는 심방이 없다고 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심방들도 이렇게 말한다.⁵⁵⁾ 대부분의 심방이 당대에 입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는 한경면 지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⁵⁶⁾

조술생 심방은 당대에 입무한 심방이다. 따라서 그의 구연본에 대해 많은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업의 습득은 후천적으로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것으로 그녀의 <원천강본풀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50) 2001년 6월 27일 조술생 심방의 딸 이○○(66世) 와 전화 통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51) 필자가 2002년 3월 15일 전화 인터뷰한 변○○ 심방과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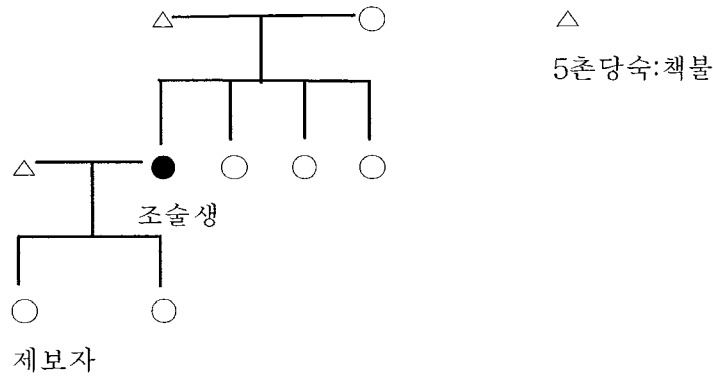
52) 책불은 그 마을에서 역서나 토정비결을 통해 가정 및 마을 대소사의 날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53) 2002년 3월 19일 조수리 주민 조○○씨(여, 65세)를 통해 알 수 있었다.

54) 2002년 3월 31일 제주도 현지 조사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55) 2002년 3월 29일 양창보 심방과의 면담

56) 이 문제는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겠다.



<표4: 조술생 심방 무가계>

(다) 강을생 심방은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1964년 조사당시 나이가 75세로 1890년 생임을 알 수 있다. 그외의 인적 사항이나 무업 습득과정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⁵⁷⁾ 그러나 강을생 심방은 한경면 지역에서 꽤나 알려진 심방 같다. 한국구전설화를⁵⁸⁾ 보면 강일생(姜日生)⁵⁹⁾으로 나와있는데 같은 제보자로 그가 구술한 내용이 “천지개벽”, “원수 갚으려 태어난 아들 삼형제”, “가문장아기와 마통이”, “자지맹왕 아기씨와 그의 아들”, “자청비”, “남선비”로 모두 곳에서 불려지는 내용들이다.⁶⁰⁾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본풀이를 구연할 수 있는 심방인 것 같다.

(라) 오인숙 심방은 1927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에서 출생하였다. 현재 77세로 태어난 마을인 세화리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의 무가계는 고부세습무의 형태이다.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할머니까지 고부세습의 모습이라면 다음대로 이어지지 않다가 손녀인 오인숙 심방으로 이어지는 특이한 형태이다. 오인숙 심방

57) 2002년 4월 20일 전화 통화를 통해 당시 조사자인 진성기 선생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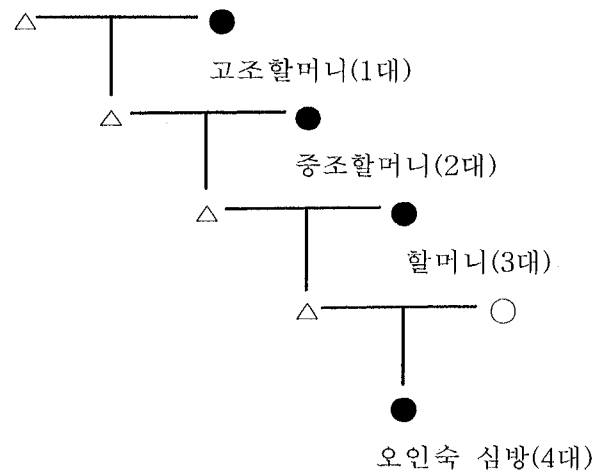
58) 임석재, <제주도편>,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59) 임석재 선생은 제주도 조사를 하는 중 진성기 선생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의 책 서문에 밝혔다. 그리고 진성기 선생도 필자에게 임석재 선생에게 강을생 심방을 소개시켜주었다고 하였다. 강일생이란 이름에 대해서 진성기 선생은 강을생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성기 선생의 채록본에 나온 강을생으로 하겠다.

60) 이 내용의 원래 본풀이들은 <천지왕본풀이>, <강림차사본풀이>, <삼공본풀이>,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이다.

은 38세에 입부하였다. 몸이 아프고 다른 가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집을 보면 짐쟁이들이 무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은 심방의 길에 들어섰다. 그녀의 신국은 다른 곳에 비해 특이하다. 그녀는 47세에 초신질을 닦았는데 그때 할머니의 역가⁶¹⁾를 대신 바쳤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반대로 심방일을 내놓고 못한 곱은심방⁶²⁾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력(靈力)이 뛰어나 심방일을 계속 했으며 89세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몇몇하게 그동안 삼맹두⁶³⁾에게 얻어먹은 것을 보답하지 못하여 오인숙 심방의 신국 때 할머니의 역가를 바치는 위주로 고향을 했다고 한다.

오인숙 심방의 초신질은 현재 일본에 가있는 김만보 심방이 닦아주었고 이신질은 구좌읍 행원리에 사는 이중춘 심방이 닦아주었다고 한다.



<표5: 오인숙 심방 무가계>

이렇게 특수본풀이를 구연한 심방들을 살펴보았다. 제주도의 서부지역인 한경면과 동쪽인 구좌읍 그리고 남쪽인 서귀포에 거주하던 심방으로 지역적으로 다

61) 심방일을 하면서 삼맹두를 통해 얻어먹은 것들을 고향 때마다 제상을 차려 쌀이나 술을 바친다.

62) 곱은심방에서 “곱은”은 “숨다”의 제주도 사투리이다. 즉 심방일을 내놓아 못하고 몰래 했다는 것이다.

63) 제주도의 무조신(巫組神)

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입무의 형태도 세습무와 강신무 모두에게서 채록이 되고 있어 특수한 무가계에서만 채록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출생 연도도 1890-1927년까지로 주로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무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⁴⁾

3.1. <원천강본풀이>

<원천강본풀이>는 두 개의 각편이 있다. 30여 년 간의 공백을 통해 두 번 채록되어졌다. 제주도 남쪽의 서귀포와 서쪽의 한경면지역에서 채록이 되었는데 자동차로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리이다. 하지만 이 두 곳의 무풍은 앞에서도 살폈듯이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각편의 내용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박봉춘 구연본- 赤松智晟, 秋葉隆 공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1930-1933년 사이에 채록됨)

(나) 조술생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61년에 채록됨)

3.1.1. 서사적 내용

(가) 박봉춘 심방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옥 같은 계집애가 강님드름에서 솟아났다.
- ② 어떤 학조가 날아와서 한 날개를 깎아주고 한 날개를 덮어주며 야광주를 주며 살았다.
- ③ 나이도 이름도 모르자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오날이’라고 지워준다.
- ④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부인을 만나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알았다.
- ⑤ 원천강을 찾으러 가다 장상이라는 사람을 만나 글만 읽는 이유를 물을 받는다.
- ⑥ 연꽃을 만나 꽃이 상 가지에만 피고 다른 가지에는 안 피는지를 물을 받는다.

64) 오인숙 심방은 1927년 생으로 아직도 심방일을 하고 있다.

- ⑦ 천하대사(天下大蛇)를 만나 야광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데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음 받는다.
- ⑧ 매일이라는 사람을 만나 글만 읽는 이유를 물음 받는다.
- ⑨ 세 궁녀를 만나 지혜와 축도로서 물을 대신 퍼준다.
- ⑩ 원천강에 도달하였으나 문지기에 의해 들어가지 못해 운다.
- ⑪ 부모를 만나 물음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한다.

위의 서사단락을 살펴볼 때 화소들을 보면 여러 설화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①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남신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 이는 지상용출(地上湧出)을 말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들어온 신들을 제외한 제주도 남신들은 지상용출의 방법으로 탄생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구좌면 세화리 천제또-천제님은 한로영산 지질개 백록담서 솟아날 때,
- 남원읍 신례리 예촌당-첫째 백관님은 하로영산 동남발디서 솟아오른 백관님이우다.
- 서귀읍 보목리 조노깃당-조노기 한집이 솟아나긴 할로영산 백록담으로 솟아났수다.
- 서귀읍 호근리 호근본향-호근뎡을 토주본향이 할루영주산서 을축 삼월 열사흘날 즈시생에 솟아나난
- 안덕면 사계리 큰물당-큰물당 조상님은 할루산 셋어께 무유알에서 솟아나니
- 한림읍 귀덕리 해모살당-할로영주산 동녘 어깨로 줄이 벌어진 본도 한집⁶⁵⁾
- 중문면 중문리 중문본향당-할로연주삼신산 셋어께 소못뎡뵈 을축 삼월 대보름날 아웁성제 솟아나고
- 중문면 상창리 상창하르방당-할로영주삼신산 상상고고리 셋어께 을축 삼월 열사을날 유시 아웁성제 솟아나니⁶⁶⁾

65) 진성기, <당신본풀이>,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6) 현용준, <당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두 책에 공통되는 부분은 진성기 자료로 하였음을 밝힌다.

현재 자료에서도 전도적으로 지상용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본향당으로서 한라산 출생이 확실한 것이 당수(堂數) 28개에 신수(神數)가 45개로 파악되고 있다.⁶⁷⁾ 이렇게 많은 당신이 지상용출을 하는 것은 제주도 고유의 신 탄생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원천강본풀이>의 탄생부분은 제주도 당신화의 지상용출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자료에서 <원천강본풀이>와 관련되어서 주목되는 것은 한림읍 귀덕리 해모살당으로 송씨할망이 한라산 동녘으로 솟아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제주도 고유의 형태인 남신이 지상용출하고 외래에서 들어온 여신과 부부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난 특이한 형태이다. 그렇지만 이런 예 하나를 가지고 제주도 여신이 지상용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 이런 변이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오늘날의 탄생이 지상용출이라는 제주도 고유의 형태를 취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②의 내용은 고구려 신화 “고주몽” 신화에 나오는 부분과 유사하다. 삼국유사 기이(奇異) 고구려편에 보면 금와왕이 알을 “왕이 개, 돼지에게 던져주니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더니 마소가 피하였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 짐승이 덮어주었고”⁶⁸⁾라는 부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도 셋김굿 중 오구굿에 보면 오구부인이 내버려둔 ‘베리덕이’가 죽지 않고 학에게 보살핌을 받는 부분도 이와 유사하다.

“별궁녀는 이말을 듣고 개명쑥대밭속을 헤치고 찾아가니 이 아기는 하늘의 백학한쌍이 내려와서~ 한날개는 깔아주고 한날개는 덮어주며 입에다가 환생초를 물려노니 죽지않고 터덕터덕 놀던구나~”⁶⁹⁾

죽으라고 개명쑥대밭에 버려진 ‘베리덕이’는 백학 한 쌍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한 날개로 깔아주고 한 날개는 덮어주며 입에다가는 환생초를 물려주어 베리덕이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모습이다. 이는 ‘오늘이’가 학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은 바리공주 전반에 나타나 있다. 경기도 오산의 무녀 배경재가

67) 현용준, <제주도 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93쪽.

68) 일연, 최호 譯, <제1권 기이 제1>, 《삼국유사》, 홍신문화사, 1996, 26~27쪽.

王棄之與犬猪 皆不食 又棄之路 牛馬壁之 棄之野 鳥獸覆之

69) 이경엽, <박경자 창본 셋김굿>, 《셋김굿 무가》, 박이정, 2000, 154쪽.

구연한 것을 보면 바리공주가 동해바다에 버려졌을 때

“까막까지 날어들어, 한날개는 팔아주고
한날개는 덤히주고, 밤이편은 안개 자욱하고“⁷⁰⁾

오산에서 채록된 이 바리공주무가에서도 새, 거북이 등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동물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처럼 신의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를 무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초공본풀이에서 노가단풍애기씨는 애기를 낳고 밖을 보니 단풍이 빨갛게 진 것을 보고 지었으며 바리공주의 어원이 버려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같다. 이런 형태의 이름짓기는 무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자.

우리가 이 애기 낳제 호난 즈자지고 공이 들어시매 일흠이랑 자청비로 호기가
어평호우파?⁷¹⁾

자청비를 낳기 위해 마음이 떨리고 공이 들었으니 자청비로 짓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자청비란 이름에서는 세경신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오날이”도 낳은 날로 이름을 짓자고 하였으니 신격 부여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무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름을 짓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④의 경우는 영웅소설에 흔히 보이는 내용이다. 어릴 적 고난을 당하던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의 부모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영웅소설에 보이듯이 도술을 가르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거나 도술 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적극성은 없다. 단지 “백씨부인”을 통해 단순히 부모국의 나라를 알려주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퇴화되었다.

70) 서대석, <본토의 무속신화>,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243쪽.

71) 진성기, <일반신본풀이>,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집문당, 1991, 239쪽.

⑤~⑧, ⑪의 경우는 구복여행담과 관련이 있다. 구복여행담은 광포유형의 설화이다.⁷²⁾ “석송”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석송이 복을 구하러 서역국이나 옥황상제, 부처, 점쟁이들을 찾으러 가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부를 만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물음 받는다. 두 번째로 노인을 만나 꽃나무에 왜 꽃이 안 피는지 물음 받는다. 세 번째로 이무기를 만나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음 받는다. 석송은 서역국에 도달해 부처로부터 이 물음에 대한 모든 답을 얻는다. 과부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고 꽃나무를 파서 보면 금이 나오므로 그 금을 쥐버리면 되고 이무기는 여의주 하나를 버리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원천강이 장상, 연꽃, 뱀, 매일을 만나서 물음 받고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이 같다. 찾아가는 목표가 “서역국”이며 “원천강”이다. 이 나라에 도달해야 그들은 그들이 목표한 바를 얻을 수 있다. 석송은 자기가 왜 못 사는지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오날이는 부모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이 길을 걷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석송이 처음에 만나는 것이 과부이다. 오날이는 장상을 만난다.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 꽃피기와 관계된 것들이다. 왜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이 여의주를 세 개나 갖고 있는 이무기에 대한 것이다. 오날이가 네 번째로 만나는 매일은 첫 번째 장상을 만나는 이유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서로 공통점을 갖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방법이 남녀의 결혼이다. 장상과 매일의 결혼이나 석송과 과부의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는 비로소 생산성을 지니게 됨을 나타낸다. 남녀의 결혼은 생산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생산이야말로 이 사회를 유지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특히 과부의 재혼은 그 생산력을 다시 발휘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꽃이 피지 않는 가지에 꽃을 다시 피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화소이다. 전국에 걸쳐 있는 창세 신화에서 미륵과 석가, 대별왕과 소별왕의

72) 한국구비문학대계, <1-3:58~65쪽, 2-1:82~91쪽, 4-2:737~747쪽, 4-5:321~326쪽, 7-8:1191~1193쪽, 1197~1199쪽> 7편이 채록되었다.

꽃피우기 내기는 생명을 관장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⁷³⁾ 제주도의 생불할망 본풀이나 이공본풀이에서 꽃을 관리하는 꽃감관은 어린아이를 생산하게 한다. 생불할망도 꽃을 들고 다니며 여자들에게 잉태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꽃은 생명 잉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화소가 된다.⁷⁴⁾

셋째, 뱀은 부의 상징이다. 오래된 이무기로부터 여의주를 획득한다는 것은 풍요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뱀 신앙과 관련이 있다. 터주와 업은 사신승배의 형태이다. 제주도 본풀이의 칠성신앙은 재신(財神) 신앙의 대표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무기의 여의주를 획득함으로써 부를 획득하게 된다.

<원천강본풀이>도 이런 구복여행담이 있으나 주된 목적이 다르다. “오날이”는 이해타산이 없이 단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원천강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구복여행담의 “석송”은 출발 동기가 자의에 의한 재물의 획득에 있다.⁷⁵⁾ 잘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한 2차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이는 <원천강본풀이>가 구복여행담의 여행과정 화소만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⑨의 내용은 제주도 본풀이에서 흔히 보이는 관습어구이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천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선녀의 문제를 지상의 인간이 해결해 줌으로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박봉춘본의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못가에당도하야보니
선녀삼인이울고있는지라,우는리유평무르니
자기네들은하늘옥황에게죄를지어
인간에나려가서,터진동이로이못을
다--푸어도고오라는명령에나려오랏스나
엇지터진동이로이물을다--푸겟습니가하니
자웁비가터진동이틀노코

73) 김현선, <‘인세차지경쟁’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67쪽.

74)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04-110쪽.

75) 조희웅, <한국 설화의 유형 연구>,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189쪽.

하늘을향하야촉수하니,터진구먹이막아지고
그못물을다--푸어주니⁷⁶⁾

삼신너가울고있으니
어떤신너길네우느나무르니
우리는옥황신너온대,죄를주고
벌러진동의에물을일어오라하니
못잉어가고울고있음니다하니
할락궁이가마의정당췌정당을거더다가
엮어메고,송진으로막아서
물을질어주고⁷⁷⁾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버림을 받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선녀들의 물을 대신 길어주는 내용은 현재 채록된 모든 <세경본풀이>에 나온다. 이는 원천강 본풀이에서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내용은 다른 채록본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⁷⁸⁾ 박봉춘 심방이 <이공본풀이>와 <세경본풀이>, <원천강본풀이>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은 박봉춘 심방이 관습적으로 부르던 어구임을 알 수 있다.

⑩ “오날이”가 문앞에 이르는 것은 본토의 바리공주가 이제 여행을 통해 무장신선이 지키는 정열문 앞에 이르는 것과 상통한다. 바리공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 물을 삼 년 길고 불을 삼 년 때고 나무를 삼 년 베어주는 정성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오날이”는 울며 하소연한다. 문이란 것은 무속에서 다음 세계로 가는 중간지점이 된다. 바리공주가 약수를 구하기 위해 통과하는 문이나 제주도 곳에서 군문열림 제차나 맞이의 질침 제차를 할 때 문을 하나씩 여는 것은 같은 관념일 것이다. 그리고 울며 하소연하는 것은 군문열림 제차 전에 행하는 연유담음

76) 赤松智晟, 秋葉隆, 위의 책, 284~285.

77) 위의 책, 264쪽.

78) 한락궁이가 물에다 피를 떨어뜨려 천상에서 그 물로 꽃밭에 물을 주니 꽃들이 말라 죽게된다.

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연유담에서는 단골이 굿을 하는 동기, 이유를 자세하게 노래하는데 굿을 하는 이유가 단골 자신이나 가족의 불행이 원인이기 때문에 사제자인 심방은 단골을 대신해 불행했던 과거를 말하면서 울고 빈다. “오날이”가 문 앞에서 그동안의 살아온 과정을 말하면서 우는 것은 현재 연유담 제차와 같다.

⑪에서 “인간에 강림해야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을 등사하였다”는 대목은 원천강의 신격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수자는 이 신격은 원천강을 쓰게 하고 사람의 사주팔자를 좋은 방향으로 알려 줄 수 있는 신으로 해석하면서 원천강이 시간이 존재하고 관장되는 신화적 공간이고, 오날이란 여신은 이런 원천강을 주재할 수 있는 여신으로 해석하고 있어⁷⁹⁾ 복합신의 모습이다. “오날이”를 사주팔자를 관장하는 신과 시간을 관장하는 신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풀이들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의 신격을 갖는다. 그래서 본풀이들이 다양하고 그 만치 신격도 다양한 것이다. <생불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에서처럼 생명꽃을 공통적인 화소로 갖고 있는 것도 있으나 그 신격은 산육신과 생명관장신이란 엄연한 분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한 신이 한 본풀이를 통해 여러 신격을 가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오늘”, “매일”, “장상”이란 단어를 가지고 시간 관장의 무가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적이다. 일단은 사주팔자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도 본풀이 화소

구북여행담 화소

본토의 신화 화소

- | | | | | |
|-------------------|---|-----|---|--------|
| ① 지상용출(본향당) | + | ⑤~⑧ | + | ② 위기극복 |
| ⑨ 천상상승(이공, 세경본풀이) | | ⑪ | | ④ 조력자 |
| ⑩ 군문열림(초감제), 연유담 | | | | |

박봉춘본 <원천강본풀이>의 전체적인 서사 내용은 이계여행담이다. 각 화소들을 거론하자면 본토의 설화, 제주도 본풀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제주도 본풀이 속성을 보이는 부분은 탄생부분과 천상으로의 상승부분, 군문열림, 연유

79)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한국 신화의 본질과 위상》, 한국구비문학회 추계학술대회, 1997, 29쪽.

뒤음 부분이다. 탄생은 남자 당신들의 지상용출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천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세경본풀이>의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군문열림은 이계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토 설화의 속성은 구복여행담이 주를 이룬다. 학이 내려와 보살펴 주는 화소는 주몽과 바리공주가 동물들의 보살핌으로 생명을 연장해가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술생이 구연한 <원천강본풀이>의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한다.
- ② 나라에서 원천강 남편을 잡아죽이려고 사령을 보낸다.
- ③ 그 사실을 안 원천강 남편이 아무시에 날 찾아오면 모르겠다고 버티라고 한다.
- ④ 원천강 남편은 장독을 파고 독 안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
- ⑤ 사령이 남편을 잡으러 와도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
- ⑥ 피를 내어 여자에게 세 살난 아기를 업혀 원천강에 가서 남편을 찾으러 왔다고 한다.
- ⑦ 원천강은 남편이 외도 한 줄 알고 독을 열어 남편을 구박하다 남편이 잡혀간다.
- ⑧ 남편이 사흘만 있었으면 하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인데 입을 잘못 놀린 것 때문에 내가 잡혀가면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
- ⑨ 원천강이나 보며 살아라 너의 팔자다. 부인은 그 후로 원천강이라 한다.

<원천강본풀이>에 대한 유일한 본격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수자의 논의에 서조차 조술생본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수자는 조술생본에 대해 탄생담이나 성장담, 공업담이 없는 일종의 에피소드, 삽화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박봉춘본만을 <원천강본풀이>로 선택하였다. 이는 이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조술생본을 보면 아기장수형 설화와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한 아기장수 설화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아기장수형 설화는 빈번히 채록되고 있다.⁸⁰⁾ 아기장수형 설화는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일생담(一生談)으로 이루어졌다.

80)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익사, 1981.

- ① 평범한 서민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 ②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 방안을 뛰어다닌다. 시렁 위에 올라가 논다. 날아다닌다.
- ③ 날개가 달린 것이 부모에게 발견된다.
- ④ 부모에 의해 1차 죽임을 당해 땅에 묻힌다 - 팔과 콩을 같이 묻는다.
- ⑤ 무덤을 파해 치니 아기장수가 곧 대군을 이끌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다.
- ⑥ 관군에 의해 2차 죽임을 당한다.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는 일생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먼저 아기가 아닌 어른의 이야기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탄생담과 어릴 적 신이한 행적이 나와 있지 않다. 성인이 되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전개하려니 당연히 어릴 적 이야기가 빠져 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의 아기장수형 전설의 특징은 날개를 제거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본토의 아기장수형 전설이 현실적인 죽음을 용마의 출현을 통해 민중의 가슴속에 아기 장수의 영상이 살아 있게 하는데 반해, 장수는 죽더라도 인간만은 살아 있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⁸¹⁾ <원천강본풀이>에서 무력을 통한 꿈의 실현이 좌절된 장수는 이제 지략으로써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것은 본토의 아기장수가 1차적 죽음 뒤에 재기를 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①원천강 남편이 왕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구절은 참으로 간절하게 자신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아기장수의 운명은 부모에 의해 단정지어진다. 날개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역적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된다는 것으로 이 둘의 지향점은 같아진다. 날개는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땅에서부터 떠나 하늘로 오르게 하는 것이다.⁸²⁾

②나라에서 원천강 남편을 죽이려 사령을 보낸다는 것은 아기장수형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그보다는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2차 죽음의

81) 현길인, 같은 책, 139쪽.

82) 현길인, 같은 책, 127쪽.

과정에서 관군에게 죽음을 당한다.

④이 본풀이에서 중심적인 것은 원천강 남편이 사령이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장독 안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장독 안은 아기장수가 재기를 노리며 대군을 일으키는 무덤 안과 같다. 남편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를 방해하려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남편은 미래를 내다보는 지략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공부를 하였다.

⑥-⑦나라에서 그를 잡으려는 시도는 집요하다. 결국 그들이 사용한 꾀는 아내인 여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남편이 외도한 것처럼 꾸며 아내는 결국 남편이 숨어 있는 장독을 가르쳐주고야 만다. 이는 아기장수가 묻힌 곳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인 여성이 이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성에 의해 그들의 꿈은 좌절되고 만다. 이는 김통정장군 설화에서 아기 업저지인 여성에 의해 성문이 열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⁸³⁾과 유사한 화소를 지니고 있다.

⑧-⑨사흘만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 왕이 될 것인데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아기장수 또한 2차 죽음을 당하고야 만다. 그러나 여기서 이 둘의 결말은 달라진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보던 “원천강”책을 주며 호구를 해결해 준다. 아기장수형 설화에선 용마가 아기장수의 죽음을 슬퍼하여 돌이 되었다는 결말과는 판이하다.

<표6: 아기장수 설화와 원천강본풀이 비교>

육지 아기장수	제주도 아기장수	원천강본풀이
부모에 의해 1차 죽음을 당함	부모에 의해 날개가 잘림	×
무덤에서 재기를 노림	힘센 장사로 살아감	지략으로 재기를 노림
관군에 의해 2차 죽음을 당함	×	관군에 의해 2차 죽음을 당함

83) 현길언, 같은 책, 147쪽.

위의 표를 통해 보면 <원천강본풀이>는 육지 아기장수의 후반부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아기장수가 힘센 장사로 살아가는데 반해 원천강의 남편은 다시 재기를 노린다. 그러나 그는 1차에 실패했던 부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혜를 통한 성공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술생본 <원천강본풀이>는 글의 내용상 아내가 어떻게 하여 “원천강”이라 불리게 되었나를 말하는 이야기이다. 아기장수형 설화를 기본 모티프로 하여 이야기는 전개되었을 지라도 ⑨에서 그의 부인이 원천강이나 보며 사는 팔자를 받게 된다.

위 두 개의 <원천강본풀이>를 살펴보았다. (가)는 “오날이”가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떠나는 내용인데 반해 (나)는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하다가 좌절되는 내용으로 서사구조상 두 본풀이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제주도 지역에서 같은 제목에 전혀 다른 서사구조를 가진 본풀이가 채록되고 있지는 않다. 다른 일반신본풀이들은 그 서사구조에서 거의 가감이 없이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각편이 마지막에서 “원천강을 등사하였다”와 “원천강을 보며 산다”는 대목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2. <원천강본풀이>의 제의적 관련성

그렇다면 원천강이 무엇이기에 각편 모두가 원천강과의 관련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원천강을 등사하였다거나 원천강을 보며 산다는 결론은 어쩌면 <원천강본풀이>에서 원천강의 신격을 나타내는 구절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원천강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제주도의 다른 본풀이에서 원천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같은 무속권(巫俗圈)에서 신격은 동일하게 불려진다. 탄생을 담당하는 신은 다른 본풀이에서도 탄생을 담당하는 신으로 나오고 죽음을 담당하는 신은 다른 본풀이에서도 죽음을 담당하는 신으로 나온다. 이는 신의 역할이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강이 제주도 무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는 원천강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따라서 다른 본풀이에 나오는 원천강을 찾아보고자 한다.⁸⁴⁾

84) 지금까지 채록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에서 찾으며 필자가 채록한 예도 제시하겠다.

<표7: 원천강이 나오는 본풀이 자료>

본풀이	내 용	역 할	자료 출처
초공 본풀이	소서중아, 넌 놈의 쫄 공히 먹고 가겠느냐? 단수육갑(單數六甲) 가졌느냐? 오형팔괘(五行八卦를) 가졌느냐? 원천강(袁天綱) 스주역(四柱周易) 가졌느냐? 우리 부배간(夫婦間)이 오십 원이 근당(近當)하여도 남녀즈식(男女子息)이 었어지니 원천강 스주역이나 곱려보라.	점자 (占者)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세경 본풀이	서스(小師)야, 소스야, 넌 놈의 쫄 공이 먹고 가겠느냐? 단수육갑(單數六甲) ㄴ졌느냐? 오형팔괘(五行八卦를) ㄴ졌느냐? 스주역 원천강(四柱易袁天綱) ㄴ졌느냐? 우리 집 부배간(夫婦間)이 오십 원이 근당하여도 남즈식(男子子息) 여즈식 생불(生佛)이 었어지니 원천강(袁天綱)이나 곱려보라, 즈식이 섬직하냐?	점서 (占書)	"
호근이 믄루 요드랫당 본풀이	너 어디 사느냐? 저는 조천관(朝天館) 이훈장(李訓長) 딸임네다. 훗일곱살(單七歲) 신병(身病) 들고 열다섯 심오세가 돼였으니 원천강(袁天綱)을 빼기라고 이런 곤대 오고 보니 오좌수를 만났수다	팔자 (八字)	"
양씨아미 본풀이 (南原面 禮村梁氏 宅 祖上)	어느 아기씨 왜옵네까? 신의성방이 혼번을 쳐다보더니 저 아기는 남대 육대 믄른 아기로구나. 저 아기 스주팔즈(四柱八字)는 때와 혼(恨)이 잇어 원천강(袁天綱)을 그르치고 스주(四柱)를 그르칠 아기로구나.	팔자 (八字)	"
초공 본풀이	대서라 혼 증은 원천강이 화주역을 ㄴ집네다. 화주역 ㄴ졌건 우리 원천강 스주나 봐줍서 화주역을 내여놓고 초장 이장 제삼장을 걸어놓고 스주팔즈를 곱리어 놓니	점자 (占者)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차사 본풀이	집으로 청히고 원천강이나 ㄴ졌느냐? 화주역이나 ㄴ졌느냐? 핀체 직흔 대스가 원천강 화주역 아니ㄴ질 필요가 심네 까? 그영흔건 이 애기들 팔제스주나 고남흔라 대스님은 원천강 화주역 권셋문을 내여놓고 초장 걸언 누울리고 이장 걸언 누울리고 제삼장은 걸언 혼는 말이	점서 (占書)	"

세경 본풀이	물어보라 원천강을 으저시냐? 원수륙을 으저시냐? 늦인득이 정하님이 나고오라 물어보난 원 손에 단수육갑 느단 손엔 오형팔필 보려내고 원천강 도 으지고 원수륙도 으지고 매딱 으졌쑤다.	점서 (占書)	„
초공 본풀이	대서님아, 소서님아 원천강(袁天綱)이나 아산 읍매가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지퍼봄서 오용팔관(五行八卦)이 나 지퍼봄서 우리가 천하 부재로 살아도 이십은 스물, 삼십은 서른, 사십 마흔이 넘도록 애기가 어시난 원천강 팔자소주가 애기 어시 무유유애(無幼而化) 흐라는 팔자 파	점서 (占書)	필자의 이중춘 심방 채록본 2000년 4월19일

위에서 살펴보면 원천강이 주로 등장하는 일반신본풀이는 <초공본풀이>, <세경본풀이>이다. 두 본풀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자식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이 기자(祈子) 기원을 위한 과정에서 동계남 은중절 중(僧)에게 자식의 유무 판단을 가리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원천강은 점서(占書), 점술가(占術家)로 나온다. “원천강이 쓴 점서”나 “원천강이란 점서”를 통해 자식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흥미있는 것은 중이 이런 점서를 지니고 다닌 다는 것이다. 이는 박봉춘본의 말미에 나온 “절마다 다니며 원천강을 등사한다”라는 내용과 그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원천강이 점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점서로 나온다.

그리고 당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는 팔자(八字)를 뜻하는 단어로 나온다. “무당이 되는 팔자를 타고났다가나 한이 많아 팔자와 사주를 거스를 아이다”라는 것은 원천강이 “운명”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주도 무속에서는 원천강이 인간의 사주팔자와 관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인공을 살펴보자. “오늘”이는 부모도 모르는 고아이다. 그리고 부모를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다. “부인”은 남편의 꿈을 좌절시키고 죽게 만드는 기구한 운명이다. 이런 일들은 여간해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일들이다. 하지만 심방들의 입무 과정을 보면 “오늘”이나 “부인”같은 일들에 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무업은 천시 받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음에 임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고통의 극한 상황

에 물리지 않는 이상 하기는 싶지 않을 것이다. 심방들은 심방일을 “팔자를 그르치는 일”이라고 한다. 이는 일상의 관점에서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어릴 적부터 너무 아파 심방 부모를 만나서 부모로 모시고 심방일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운명에 낳은 부모를 뒤로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며 심방일을 배우게 되는 운명을 타고난 심방⁸⁵⁾이나 심방집에 시집가야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다 하여 심방집에 시집을 가게 되는 운명⁸⁶⁾ 등은 이들의 운명이 죽음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방의 운명을 거부함으로써 가족들이 죽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는 입무동기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부인”이 남편을 죽게 하고 원천장을 보게 하는 경우와 일맥상통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각편의 결론이 “오날이”와 “부인”이 사주팔자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심방의 기능 중 점사적(占師的)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는 <원천장본풀이>가 심방이 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본풀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원천장본풀이>에 등장하는 “매일”, “장삼”이가 심방의 신궁에서 불려진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한경면 큰 심방인 변○○ 심방의 이야기를 살펴보자.⁸⁷⁾

“매일이 장삼이는 오늘 살안 내일 가자 내일 살안 모래 살자
허는게 이래 소곡 저래 소곡”
이건 노래로 불린 들어가는 것
문에 간 울엄서라
팔자 굿이 사람이 눈물이 나주
“육황에서 천황새도 저 아래 노련 무애 나무 상가지에 아잔
칭이실에 놀개 젖언 놀지못허난 무애나무 상가지에 이래 송골 저래 송골 소곡
소곡 울엄서라”
신궁혈 때 이 팔자굿인 사람 신울령
그냥 팔자굿인 사람이 신을 받아내련 신받아 노면은
혼자 들러키당 탁 신전덜에 엎어지민 이 때 이 노래를 큰심방이 부르명
“전싱굿인 성은 나뭇가의 낳은 선철 어느 성진성편 외조편 심방 무당의 조순

85)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에 거주하는 오○○ 심방의 입무 과정이다.

86) 박봉춘 심방의 며느리인 이○○ 심방의 경우이다.

87) 필자의 2002년 3월 31일 변○○ 심방과의 대화과정에서 녹취한 것이다.

도 아니우다.

심방의 조순도 아니우다.”

영하여 가민 선심방이 노랫 부르는 사람이 목 노앙 울주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 신 받지 못하여.

위 글을 보면 신굿을 하는 과정에서 천신일월맞이⁸⁸⁾ 때 매일, 장삼의 노래가 불려진다고 한다. 천신일월맞이를 간략하게 보면 처음엔 신청례를 통해 조상신인 천신일월을 제장으로 불러들이고 다음으로 천신일월신에게 역가를 바치고⁸⁹⁾ 석시를 논다.⁹⁰⁾ 이후 선심방이 혼자 난무를 추다가 없어지면 큰심방이 매일, 장삼의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를 부르면 심방의 길을 시작한 사람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심방이란 일은 예나 지금이나 팔자를 그르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싫어하였고 그 운명이 자신에게 닥치면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심방의 길로 들어서고 그 첫째 관문인 신굿⁹¹⁾에서 선심방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서러웠던 많은 일들을 회고하며 울게 된다.

(가)는 “오날이”가 심방이 되는 입무과정이라 볼 수 있다. 고아로 태어난 “오날이”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해결하는 이계여행을 통해 심방이 된다.

(나)는 “부인”이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르치는 팔자로 결국은 심방의 일을 하게되는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보면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신굿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변○○ 심방이 “매일이 장삼이는 삼궁주년국 본풀이 전상드리라”고 증언하는 것과 삼궁본풀이 후반부에 맹인 부부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삼궁본풀이 가 일반 단골들의 운명에 대해 본을 푼다면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의 본을 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적 상황은 전승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굿은 다른 굿에 비해 그다지 많이 행해지는 굿이 아니다. 한 심방이 평생 신굿을 해도 초신절, 이신절, 삼신절 세 번 행한다. 요즘처럼 신굿도 행하지 않고 무업을 하는 경

88) 큰굿에서 불도맞이 다음에 행하는 제차로 일월신은 보통 조상신을 뜻한다.

89) 역가는 심방들이 지금까지 굿을 하면서 벌어먹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90) 석살림이라고 하는데 오신의 과정이다. 신과 심방, 단골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논다.

91) 육지의 내림굿.

우에는 <원천강본풀이>의 전승은 당연히 단절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2. <세민황제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는 중국 당태종을 주인공으로 한 본풀이이다. 각편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서사내용은 제시하되 화소 분석은 같이 하겠다.

- (가) 박봉춘 구연본-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1930-1933년 사이에 채록됨)
- (나) 조술생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61년에 채록됨)

3.2.1. 서사적 내용

(가) 박봉춘 구연본을 살펴보겠다.

- ① 이승에서 만민을 괴롭히고 불법을 무시하고 신자들을 엄벌했던 포악한 세민황제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 ② 이승에서 엄벌과 약탈을 당했던 백성들이 물려와 복수하고, 빼앗긴 돈을 찾아달라고 한다.
- ③ 저승왕의 지시로 이승 사람 매일장상의 돈을 꾸어 갖고 이승으로 나온다.
- ④ 자신의 저승궐에는 동네 늙은이에게 줬던 벋짚 한 묶음밖에 없자 이승에 나가서 적선을 하라고 한다.
- ⑤ 이승의 매일장상을 찾아보고 그 적선에 감동된 세민황제는 적선지도를 의논하니 팔만대장경을 내어와야 한다고 영의정이 말한다.
- ⑥ 호인대사를 불러 극락세계의 팔만대장경을 내어오게 한다.
- ⑦ 호인대사는 발이 가는 대로 걸다가 층암절벽에 갇힌 빠른개비를 살려준다.
- ⑧ 빠른개비와 함께 배를 얻어 타고 바다를 건너 극락세계로 간다.
- ⑨ 그곳에서 팔만대장경을 얻어 세민황제에게 바친다.

- ⑩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매일장상을 불러 칭찬하고 적선환인지도를 행한다.

박봉춘본의 <세민황제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서대석이 구체적으로 행하였다.⁹²⁾ 《서유기》와 《당태종전》, <세민황제본풀이>의 서사구조와 등장인물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그의 결론은 《서유기》에서 《당태종전》으로 영향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세민황제본풀이>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서사구조가 같고 등장인물 또한 차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등장인물 중 “매일”과 “장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유기>에서 “相良”과 그의 처 “張氏”가 <당태종전>에서 “장상부부”로 나타남도 “相良”의 “相”자와 “張氏”의 “張”가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⁹³⁾ 그리고 <세민황제본>의 매일장상도 장상에 매일이 첨가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나) 조술생 구연본을 살펴보겠다.

- ① 오늘은 달도 좋고 날도 좋은 날이다.
- ② 매일과 장삼이 남의 일 하며 얻어먹다 죽어 저승왕에 들어가니 품삯 거슬린 것이 창고에 가득찼다.
- ③ 세민황제가 남의 것을 많이 먹어 저승에 가니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 매일과 장삼에게 꾸 갚는다.
- ④ 인간으로 돌아온 세민황제가 매일이와 장삼이를 찾아 돈을 갚으니 영암 덕진산 깊은물에 덕진다리 놓았다.
- ⑤ 덕진다리 놓아두고 만민에게 적선(積善)을 받아 극락세계 가고 저승부자 되었다.

조술생 구연본도 박봉춘 구연본과 서사구조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설화체가 아닌 가사체이며 서사성이 약화되고 생략된 부분이 많다.⁹⁴⁾ 특히 호인대사를 불러 팔만대장경을 내어오게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불교적 색채가 약화되었거나 이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으로 불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세민황제본풀이>는 두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뉜다.

92) 서대석, <서사부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93) 서대석, 같은 책, 116쪽.

94) 서대석, <서사부가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68, 108쪽.

앞 부분은 악행을 저지른 세민황제가 지옥으로 떨어진 후 이승 사람 매일장상의 돈을 꾸고 이승으로 나온 후 적선지도를 하게되는 부분이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황제이고 선행을 하는 것은 필부로 대조를 보인다.

후반부는 적선지도를 의논하여 호인대사를 시켜 팔만대장경을 갖고 오게 한다. 호인대사와 빠른개비의 여행을 통해 팔만대장경을 갖고 오는 것은 《당태종전》의 홍난대사와 손행자의 여행과 같다.⁹⁵⁾ 그러나 조술생의 구연본에는 이 부분이 없어 제의와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2. <세민황제본풀이>의 제의적 관련성

이렇게 중국에서 수입하여 소설로까지 읽혀졌던 이야기가 본풀이에 불려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굿에서 세민황제의 이야기를 차용하면서 단골들에게 주려는 의미가 있거나 어떤 제차에 긴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미를 유추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다시 죄를 갚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적 사고이다.

다음으로 지옥에서 이승으로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굿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제주도 굿의 제차 중 시왕맞이에서 영혼을 불러내고 다시 위로하고 저승으로 보내는 과정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세민황제본풀이>는 언제 행해지는 제의일까? 큰굿에서 이승, 저승의 왕래는 강림차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변○○ 심방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세민황제 시절엔 굿도 혼 번 못허게 해수다 만은
굿도 못허게 허던 세민황제도 모르던 실텐 가슴을 조늘롭서
잔 낼 때 잔 내명 므른 가슴 조늘롭서, 산뜻산뜻 애신가슴 조늘롭서, “
세민황제는 너미 인간덜에 나쁜짓을 한 사람. 피 빨아 먹은 죄를 마련허는게
저심빚을 갚으라
매일이 장삼이 돌방거리에서 애기 나명 살게되난 짚 혼나 자리려 해주겐 밖에
업주게

95)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68, 113쪽.

이 놀래에 들어갈 필요가 어서

세민황제는 저성빛이 많으니까 우리 인간도 죽어 빛 깊은 건 말할 때.

그녀의 증언과 본풀이의 사실을 통해 <세민황제본풀이>는 차사영가 질칠 때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서 세민황제가 살아온 역사를 푼다. 이는 죽은 세민황제가 저승과 이승사이를 왕래했다는 것은 강림차사와 관련성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시왕맞이 중 소재차인 차사영가를 질칠⁹⁶⁾ 때 영혼드리⁹⁷⁾와 차사드리⁹⁸⁾를 같이 바닥에 간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이승에서 많은 죄를 짓고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곳에서는 죽은 자의 이승에서의 잘못을 비는 제의가 필요한데 세민황제의 악행은 적절한 예시가 된다. 이를 통해 신앙민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술생본에 팔만대장경 찾기 화소가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세민황제의 죽음을 통한 권선징악의 메시지에 팔만대장경 화소가 굳이 끼여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는 박봉춘본이 《당태종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면 조술생본은 곳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수용한 것이다.

3.3. <허궁애기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는 다른 본풀이들이 본토의 설화 화소를 수용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내용도 들어가지 않은 고유한 형태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본풀이는 현재에도 이 내용을 아는 심방들이 있어 그 존속성이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현재 다섯 편이 조사되어 있다. 지역적으로 한경면,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구좌읍으로 제주도의 전역에서 채록이 되었다. 채록의 간격도 거의 50년에 이르

96) 사자(死者)의 영혼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저승차사뿐이다. 따라서 사자의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차사도 같이 모셔와야 한다.

97) 죽은 영혼을 제장으로 모셔오는 다리로 긴 천을 밖에 세워진 큰대에 묶어 안으로 연결시킨다.

98) 영혼을 데려오는 차사의 다리로 큰대에 영혼드리와 같이 묶여있다.

고 있어 오랫동안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각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이오생 구연본⁹⁹⁾- 진성기,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1955-1956년 사이에 채록됨)
- (나) 강을생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64년에 채록됨)
- (다) 이방아 구술본¹⁰⁰⁾-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제주도편》, 평민사, 1992, (1964년 8월에 채록됨)
- (라) 윤추월 구술본¹⁰¹⁾- 현용준, 현길언,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981년 7월 16일 채록됨)
- (마) 오인숙 구연본- 부록에서 제시했음 (김현선이 2002년 3월 26일 구좌읍에서 채록하였다)

3.3.1. <허웅애기본풀이>의 서사적 내용

- (가) 이오생 심방본의 서사단락을 살펴보겠다.¹⁰²⁾
- ① 열세 살 된 남편과 세 살 된 아들과 한 살 된 딸아기와 살던 허웅아기는 나이 어린 어머니였다.
- ② 살림 솜씨가 좋아서 저승의 왕에까지도 퍼져나갔다.
- ③ 저승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어서 저승왕은 허웅아기를 데려다 저승의 살림을 보살피도록 하리라 마음먹고 차사들을 보냈다.
- ④ 허웅아기가 알고 밥을 지어 상을 차려 어머니 방에 달려가서 이 밥 잡숫고

99) 탐라의 신화에는 구연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진성기 선생이 1955-1956년 사이에 서귀포 이오생 심방에게서 채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00) 《한국구전설화》에서 “허웅아기”가 무가로 채록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구술자가 당시 제주시에서 삼승할망을 하는 李芳兒로 진성기 선생이 2002년 4월22일 증언하였으며 李芳兒씨가 같은 책에 “피꼬리와 호랑나비가 된 由來”를 구술하였는데 이는 제주도 무가의 <세경본풀이>와 같은 얘기로 李芳兒씨가 본풀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구술한 것으로 보아 李芳兒씨의 “허웅아기”도 같이 다루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01) 1916년 안덕면 출신으로 현길언 조사에 의하면 독실한 불교신자이며 야학을 통하여 기본적인 학식을 갖추었다. 설화를 말하고 민요를 다수 구연하였다.

102) 진성기가 밝혔듯이 본풀이를 동화체로 옮겨 본풀이 구연방식이 나타나지 않으나 서사성을 살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차사에게 인정 걸어 달라고 한다.
- ⑤ 무엇으로 걸겠느냐고 하자 허웅아기가 술으로 걸겠다고 한다.
 - ⑥ 계집자식 하나 없는 건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고 너나 먹고 저승 가라고 한다.
 - ⑦ 아버지에게 가서 말로 걸겠다고 하자 계집자식 하나 없는 건 살아도 말 없이는 못 산다고 너나 먹고 저승 가라고 한다.
 - ⑧ 할아버지에게 가서 황소로 걸겠다고 하자 계집자식 하나 없는 건 살아도 황소 없이는 못 산다고 너나 먹고 저승 가라고 한다.
 - ⑨ 언니에게 가니 애고 불쌍한 동생이라고 열두 폭 치마 한 벌 걸어준다.
 - ⑩ 차사님이 오자 밥을 올려 잡수고 내가 갈 수 없다고 돌아가라고 한다.
 - ⑪ 왜 못 가겠느냐 하자 열세 살 된 낭군님에 세 살 된 아드님에 한 살 된 딸아기가 있어 못 간다고 비세같이 운다.
 - ⑫ 그럼 저승 닭 울면 이승 오고 이승 닭 울면 저승 가며 낭군과 아이들 살피라고 한다.
 - ⑬ 이렇게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살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보고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다.
 - ⑭ 사내애가 어린애를 업고 이웃할머니에게 놀러가니 어머니가 없어도 누가 그렇게 몸단장을 예쁘게 하여 주느냐 묻자 어머니가 이승 닭이 울면 저승엘 가고 저승 닭이 울면 이승에 와서 해준다고 하였다.
 - ⑮ 오늘밤에 어머니가 오면 할머니에게 일러달라고 하자 아이는 안 된다고 하였다.
 - ⑯ 할머니는 사내아이를 달래어 어머니를 만나 다시는 저승에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사내아이는 좋아한다.
 - ⑰ 그 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승 닭이 울자 찾아온다.
 - ⑱ 사내아이가 변소 가고 싶다고 하였다. 나갔다 오라고 하자 무섭다고 안 간다. 술 밑에 누라고 하자 조왕할망이 나온다고 하고, 천장앞은 달락귀신이 나오고 뒷뜰에는 밧칠성이 나오며 안방에는 안칠성이 나온다고 안 한다.
 - ⑲ 사내아이가 실 한 꾸러미를 달라고 하면서 한 쪽은 엄마가 잡고 한 쪽은 내가 잡고 나갔다 오면 된다고 하여 나갔다.
 - ⑳ 사내아이는 소변을 본 후 달아나 이웃집 할머니를 데려왔다.
 - ㉑ 할머니는 어린것들이 불쌍하니 저승에 가지 말라고 하자 어머니는 난감해 한다.
 - ㉒ 할머니가 허웅아기를 책 갑 속에다 숨겨놓고 대문을 잠갔다.

- ②③ 저승에서 야단이 나 저승차사가 잡으러 와 지붕위로 올라가 용마루를 도끼로 좌우 세 번 두드리니 구멍이 열렸다.
- ②④ 차사는 집안으로 들어와 허웅아기의 쌍가마에서 머리털 세 개를 뽑아가며 혼은 내가 갖고 육신은 당신이 차지하소 한다.
- ②⑤ 이웃 할머니는 허웅아기가 실마 죽지는 않았으리라 하였는데 죽어있었다.
- ②⑥ 할머니가 허웅아기를 숨기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죽었어도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며 반반씩 살 것이었지만 이제는 한 번 죽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나) 강을생 심방본의 서사단락을 살펴보겠다.

- ① 큰 각시가 딸 하나를 낳고 죽자 아버지가 허궁애기를 후처로 삼고 딸을 낳는다.
- ② 허궁애기는 전처의 딸은 콩만 삶아 주어 곱고 자기 딸은 팥만 삶아 주어 얼굴이 곱었다.
- ③ 팥대기는 돼지 먹이를 주고 콩대기는 소를 데리고 삼을 삼으려 하는데 소가 자꾸 곡식을 먹자 그만 먹으라 하며 삼을 어떻게 삼을지 걱정하자 소가 삼을 먹고 항문으로 잘 삼은 삼을 뱉아준다.
- ④ 팥대기가 이 말을 듣고 소를 끌고 들에 나갔는데 소는 풀만 먹자 그만 곡식을 먹으라하며 어떻게 삼을 삼을지 걱정하는 척 말을 하자 소가 삼을 먹고 치마를 받아라 하고 똥을 싸버린다.
- ⑤ 화가 난 팥대기가 소를 잡기 위해 백정을 데리러 가자 소가 콩대기에게 내뺀 대나무발에 버리고 국물은 찬장에 부어버려라 한다.
- ⑥ 뒷날 하늘 옥황 원복장네 집에 큰곳이 있어 팥대기 어머니와 팥대기는 구경가고 콩대기에게는 기름 묻은 기장 다섯 말을 찢어놓고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한다.
- ⑦ 콩대기는 기장이 미끄러워 못 찢자 말리려고 널어놓은 후 물을 길고 오니 참새가 기장을 먹고 있어 한탄을 하며 내쫓는다.
- ⑧ 항아리에 물을 길어놓아도 물이 차지 않자 까마귀가 항아리를 굽어 보라 하여 보니 터져있어 옷을 벗어 막아놓고 가득 채웠다. 기장을 찢으려고 나와 보니 참새들이 모두 까놓아 굽 구경을 가려고 한다.
- ⑨ 누더기를 쓰고 가려하자 까마귀가 대나무 발을 굽어 보라 하여 고운 고리

- 짜이 있어 열어 보니 예쁜 옷들이 있어 입자 까마귀가 찬장을 열어 보라 하여 판머리가 있어 차려입고 옥황에 굿 구경을 갔다.
- ⑩ 청의도령이 신발을 들고 발에 맞는 자는 부인이라 하여 콩대기는 맞고 팔대기는 크고 팔대기 어머니는 작아 콩대기를 데려 잘 산다.
- ⑪ 가장(家長)이 먼 데를 가며 콩대기에게 팔대기나 팔대기 어머니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한다.
- ⑫ 팔대기가 찾아와 집에만 있어 갑갑하니 연하못에 목욕하자고 하나 남편이 은둥이에 물을 떠놓고 목욕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안 나가자 물개똥을 낮에 뿌려버린다.
- ⑬ 추워서 목욕을 못하겠다고 하자 등목을 시켜준다며 옷을 벗겨놓고 떠밀어 빠트려버린다.
- ⑭ 팔대기 콩대기 입었던 옷을 주워 입고 팔대기 집으로 간다.
- ⑮ 가장이 들어와 팔대기가 와서 목욕하러 가자고 안 왔었다고 하자 문을 안 열어주었다고 한다. 가장은 콩대기를 닮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 ⑯ 하루는 가장네가 말을 물 먹이러 갔는데 청나비가 물 위에 날고 있어 곱다고 집으로 가져온다.
- ⑰ 팔대기가 나가려 하면 나비가 앞머리 채를 잡아당겨서 나비를 화로에 넣어 버리자 구슬이 된다. 팔대기가 예쁘다고 궀 속에 넣어둔다.
- ⑱ 궀 속에 있던 구슬이 사람이 없으면 나와서 “저 년의 팔대길 죽여주세요” 한다. 어느날 가장이 온 것을 모르고 하다가 들키자 궀 속으로 숨는다.
- ⑲ 가장이 하루는 어디로 가는 척 하다가 들어와서 궀 속에서 나온 처녀의 뒷머리채를 잡아보니 콩대기임을 안다.
- ⑳ 콩대기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듣고 팔대기를 죽여 소금에 절여 놓고 삶아서 팔대기 어머니에게 먹인다.
- ㉑ 팔대기 어머니가 밥을 먹다 손톱, 발톱을 보고 팔대기임을 의심하자 아니라고 한 후 다 먹자 “너 명으로 낳고 너 명으로 너의 아기 고기 다 먹었으니 떠나가라” 한다.
- ㉒ 콩대기가 딸 형제를 낳고 그럭저럭 사는데 저승 염라왕이 콩대길 데려오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저승에 간다.
- ㉓ 아기들 생각에 우니 저승 염라왕이 그 이유를 묻자 아기들 생각에 수심이

되고 근심이 된다고 한다.

- ㉔ 그러면 낮에는 저승에 들어오고 밤에는 인간에 나가서 부모님 공경하고 아기를 보살 피라 한다.
- ㉕ 콩대기는 밤에는 인간에 내려와 아기를 돌보는데 동네 사람이 놀러와서 애기 돌보는 할머니에게 “어째서 어머니 없는 아기들이 이렇게 곱게 하느냐?” 하자 아기가 어머니가 밤에는 내려와서 밥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머리도 빗어 주고 낮에는 간다고 한다.
- ㉖ 할머니가 손자보고 어머니가 오면 서로 참실을 손목에 동여매어 당기라고 한다.
- ㉗ 어머니가 오자 아기가 똥이 마렵다고 한 후 나가서 참실을 땡기자 할머니가 들어온다.
- ㉘ 할머니가 다시 가지 말라고 하자 안 갈 수가 없다고 한다. 할머니가 문안에서 문을 잠그고 올래에 가시를 쌓으면 차사들이 못 온다고 해서 다음날 문을 잡아 얹고 큰딸아기는 구들 쓸어서 불사르고 마루 쓸어서 불사르고 부엌 쓸어서 불사르고 시어머니는 바깥으로 자물쇠 걸어두고 올래에 가시 베어다 쌓아놓았다.
- ㉙ 여러 날을 가지 얹으니 차사님이 찾아와 허웅애기가 어디 있느냐 묻자, 시어머니가 “그년이 안 가려고 올래에 가시 쌓고 문 잠가서 들어앉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 ㉚ 차사가 데리고 갈 방법을 묻자, 지붕 상마루로 가서 혼이나 빼가라고 해서 그만 허웅애기는 그만 죽어서 대신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 법으로 이 세상에 인간이 죽으면 다시 못 오고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나빠졌다.

(다) 이방아 심방본의 서사단락을 살펴보겠다.

- ① 옛날에 하늘에도 해와 달이 두 개 있어 사람들이 타죽고, 얼어죽었다.
- ② 그러한 시절에 허웅애기가 있어 시집가서 딸을 여럿 두고 키우다가 저승으로 갔다.
- ③ 허웅애기는 무명짜기를 하다가 자꾸 울자 열시왕이 왜 우냐고 하자 이승에 있는 자식과 낭군님 생각이 나 운다고 하였다.
- ④ 그러면 이제부터 밤에는 이승 가고 낮에는 저승 오라고 하였다.
- ⑤ 허웅애기는 밤에는 이승 가서 아기들 머리를 곱게 빗기고 곱게 따두고 낮

에는 저승으로 돌아왔다.

- ⑥ 동네 할머니가 이상히 여겨 머리를 누가 해 주냐고 하자 아기가 우리 어머니가 해준다고 대답하자. 어머니가 오면 할머니보고 말하라고 한다.
- ⑦ 어머니는 밤이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문을 모두 잠그고 오줌도 밖으로 나가서 싸지 못하게 하여 아이들은 동네 할머니에게 어머니 왔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 ⑧ 다음날 동네 할머니가 어째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고 오줌도 밖에 나가서 싸지 못하게 해서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 ⑨ 할머니는 실을 주며 한끝은 내 발에 묶고 한 끝은 아이 발에 묶어 어머니가 오면 실을 잡아 당기라 일켰다.
- ⑩ 밤이 되어 어머니가 오자 실을 당기고 동네 할머니가 왔다.
- ⑪ 여러 가지 말을 하다보니 허웅아기는 저승 갈 시간을 잊어버리고 늦게 저승에 갔다.
- ⑫ 여러 가지 말을 하느라고 늦었다고 하자 열시왕은 이승에 나가서 이승 사람하고 말하다가 저승 비밀도 말할까봐 귀신 말을 이승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였다.

(라) 윤추월본의 서사단락을 살펴보겠다.

- ① 옛날에 고·양·부 삼성 몇 사람만 있을 때에 하늘에도 해와 달이 두 개 있어 사람들이 타죽고, 일어죽었다.
- ② 그러한 시절에 허웅아기가 있어 시집가서 자식 낳고 키우다가 저승으로 갔다.
- ③ 허웅아기는 무명짜기를 하다가 자꾸 울자 열시왕이 왜 우냐고 하자 이승에 있는 자식생각이 나 운다고 하였다.
- ④ 그러면 이제부터 밤에는 이승 가고 낮에는 저승 오라고 하였다.
- ⑤ 허웅아기는 밤에는 이승 가서 아기들 어미를 곱게 빗기고 곱게 따두고 낮에는 저승으로 돌아왔다.
- ⑥ 동네 할머니가 이상히 여겨 머리를 누가 해 주냐고 하자 아기가 우리 어머니가 해준다고 대답하자. 어머니가 오면 할머니보고 말하라고 한다.
- ⑦ 허웅아기는 밤이면 사람들이 불까봐 문을 모두 잠그고 오줌도 밖으로 나가서 싸지 못하게 하여 아이들은 동네 할머니에게 어머니 왔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 ⑧ 다음날 동네 할머니가 어찌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어머니가 방문을 잠가서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 ⑨ 할머니는 실을 주며 한끝은 내 발에 묶고 한 끝은 아이 발에 묶어 어머니가 오면 실을 잡아 당기라 일렀다.
- ⑩ 밤이 되어 어머니가 오자 실을 당기고 동네 할머니가 왔다.
- ⑪ 할머니가 오면서 올레와 마당에 한타나무 탕낭가시를 쌓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허웅아기를 가지 못하게 하여 시간이 지났다
- ⑫ 저승에서 차사를 이승으로 보내어 지붕위에서 허웅아기의 머리카락을 몇 올 뽑아 저승으로 데려가 버려 허웅아기는 영원히 집에서 죽었다.
- ⑬ 다음부터는 저승과 이승이 구분을 갈라 귀신 부르면 생인이 대답하고 생인 부르면 귀신이 대답하던 것을 대별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트려 귀신들이 말을 못 하게 하였다.
- ⑭ 사람이 죽으면 소름하고 흰쌀 일곱 방울을 넣는 것은 저승 가서 이승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없다.

(마) 오인숙 심방본의 서사단락을 살펴보겠다.

- ① 옛날 옛적 허궁애기 서른 두 살 나던 해에 딸 삼형제 놓아두고 저승에 들어가니 저승에서 비새같이 울어간다.
- ② 염라대왕이 어떤 일로 우느냐고 하자 우리 집에 부모조상 없는 딸 삼형제 버려두고 저승에 오니 살 수가 없다고 한다.
- ③ 그러면 칠판에 침을 뱉어놓고 이 밤, 저 밤 야삼경에 인간에 가고 아기들 밥 차려놓고 침 마르기 전에 저승으로 들어 오라 한다.
- ④ 그렇게 하여 2, 3일 동안 아기들 돌보며 저승을 왕래했다.
- ⑤ 하루는 동네에 청태산이 마구할마님이 부모조상 없는 아기들이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하자 누가 이렇게 해주느냐고 묻자 어머니가 저승에서 와서 우리들 돌봐주고 간다고 한다.
- ⑥ 오늘밤에 오면 자기에게 말해주면 너희 어머니 단단하게 숨겨주겠다고 한다.
- ⑦ 그 날 밤 어머니가 오니 아기들이 할머니에게 말하자 할머니가 와서 가지 말라고 하고 단단히 숨겨주겠다고 한다.
- ⑧ 안 고방에 들어가 독 안에 숨겨놓고 뚜껑을 닫는다.

- ⑨ 저승에서 시간이 넘어 칠판에 침이 말라도 아니 들어오니 강림이를 이승으로 보낸다.
- ⑩ 지붕으로 올라가 안고방을 굽어보니 속 안에 숨어 있어 몸체는 데려갈 수 없어 혼만 빠 저승에 들어간다.
- ⑪ 그때부터 허궁애기는 다시 인간에 돌아오지 못했으며 인간도 한 번 저승가면 이승에 못 오는 법치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의 화소들을 살펴보았다. 다섯 개의 각편들은 공통의 화소로 이루어졌는데 살펴보면 허궁애기가 이승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저승에 들어간다. 이승의 자식들 생각에 계속 올라 염라대왕의 특별한 배려로 밤마다 이승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웃할머니의 꾀임으로 날이 밝기 전에 저승으로 돌아오는 약속을 어겨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공통화소와 달리 각편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적 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의 각편은 허웅아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명(命)이 다되어 데려간 다기보다는 저승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함으로 되어있다. 저승의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은 저승이 결핍의 상태이거나 무질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천지왕본풀이>에서 “저승법은 이수능장법이며¹⁰³⁾, 죽는 날 춤썰굴은 법이로다”¹⁰⁴⁾로 질서정연함을 말하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승에서 살림살이를 잘하는 허웅아기를 데려가는 것도 이승의 소별왕이 저승의 대별왕에게 이승의 혼란을 평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액막이 제의의 의례적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저승차사들이 허웅아기를 잡으러 오자 밥을 지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차사에게 인정을 걸어달라고 하는 것은 <맹감본풀이>에서 스사만이가 명이 다되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저승차사들에게 음식과 신발로 인정을 걸어 저승차사를 돌려보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의례는 아직도 큰굿에서 시왕맞이 제차에서 액막이를 할 때 신앙민들이 쌀과 천을 차사신에게 바쳐 액을 물리쳐 달라고 비는 것과 같다

103) 맑고 청량한 법이라는 뜻

104) 문무병, <천지왕본풀이>,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111쪽.

(나)는 전반부의 콩대기팔대기 이야기와 후반부의 허궁애기 이야기로 나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콩대기팔대기 이야기는¹⁰⁵⁾ 콩쥐팥쥐 설화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광포유형의 설화이다. ①-②까지가 콩대기와 팔대기 이야기로 꽃으로의 재생 화소와 악을 징치하는 화소가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 콩대기팔대기 이야기가 <허궁애기본풀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 허궁애기가 콩대기의 계모 즉 팔대기의 어머니로 나왔다가 후반부에서는 콩대기가 다른 각편의 허궁애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 본풀이 제목하고 주인공이 맞지 않는다. 또한 다른 각편에서 이런 이야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용상의 관련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¹⁰⁶⁾

허궁애기를 숨기는 과정이 다른 각편에 비해 적극적이다. 집 입구에 가시를 쌓고 문을 잠가 차사들이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였으며 집 안을 쓸어 먼지를 불사르고 있다.¹⁰⁷⁾ 하지만 이 것이 허궁애기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임이 시어머니가 차사를 만나 하는 얘기에서 들어난다. “그년 아나가젠 올래에 가시 쌓고 문 중간 들어왔습수다”¹⁰⁸⁾ 이 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고부갈등 시원담이 나타난다.

(다)는 천지개벽의 과정에 나오는 해와 달이 두 개인 이야기가 나온다. 천지와 본풀이에서 불려지는 화소로 세상이 무질서화 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귀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수 있다. 이후에는 공통화소가 불려지다가 이웃할머니가 찾아와 저승으로 못가게 말리는 화소부터가 매우 약하게 되었다. 첫째, 이웃할머니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허웅애기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숨기기 방법이 없고 단지 허웅애기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만 보인다. 둘째, 차사가 허웅애기를 잡으러 오는 화소가 없이 허웅애기가 늦게나마 저승으로 간다. 이는 저승차사가 죽은 자를 강제적으로 저승에서 데려가는 필연

105) 구비문학대계, <6-10: 201-202> 전남 화순군 도곡면 설화에 채록이 되어있다.

106) 제의적 관련성을 유추할 때 재생화소는 무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콩대기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 시왕밧이에서 불려질 수는 있을 가능성은 있다.

107) 집안을 쓸어 낸 후 불사르는 경우 곳에서 발견할 수 없다. 비슷한 제의는 액막이를 한 후 소지를 태우는 경우가 있다. 또 곳이 끝날 즈음 집안 구석구석에다 콩을 뿌려 액을 물리치는 “도진”의 제차에도 콩을 잘 쓸어모아 깨끗한 곳에 버린다.

108) 허웅애기가 아니 가려고 집 앞에 가시나무 쌓고 문 잠가놓고 들어왔습수다.

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과에서도 허웅애기가 이승 사람하고 말하다가 저승 비밀을 말할까봐 귀신 말을 이승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였다. 이는 공통화소에서 이승과 저승을 구분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직도 이승, 저승의 왕래가 금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을 못 알아듣게 한다.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지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라)는 (다)의 각편과 거의 서사단락이 같다. 동네 할머니가 허웅애기가 온 것을 알고 대처하는 방식에서 저승차사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웅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조적이며 사람이 죽어 이승의 일을 저승에 가서 얘기 못하게 하려고 소렴(小殮)할 때 흰쌀을 입에 넣는다고 하였다. 이는 장례절차에서 소렴 할 때 쌀을 입에 넣는 이유를 나름대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가장 최근에 채록이 된 것으로서 40년 전의 본풀이와 서사내용이 같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이웃할머니가 청태산 마구할마님으로 나와있다는 것이다. 마구할마님은 우리나라 설화에서 거인으로 지형, 지물을 창조한다. 거인설화는 원래 천지창조신화의 한 형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신격의 이야기이다.¹⁰⁹⁾ 천지창조신화 인물의 잔형이 본풀이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본풀이 또한 고향의 본풀이 잔형임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각편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화소들을 지니고 있으나 이승과 저승을 왕래하는 공통화소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다.

3.3.2. <허웅애기본풀이>의 제의적 관련성

제의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여러 화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진성기는 일부 심방들은 <허웅애기본풀이>를 <초공본풀이> 다음에 붙였으며 허웅애기는 역울한 귀신이며 어린애를 나서 기르는데 있어 평안하게 해주는 신이라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것은 이 진성기가 채록할 당시 구연했던 심방들이 삼승할망들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삼승할망은 큰곳에서도 참여를 하나 주로 산육을 담당하는 심방이다. 따라서 그들이 <허웅애기본풀이>에서 “허웅애기”가 자식들을 못

109)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71쪽.

있어 이승으로 내려와 돌보는 화소를 산육의 신격으로 파악하였으며 <초공본풀이> 다음에 불렀다는 것은 현재 곳에서 <삼승할망본풀이>가 불려지는 것과 같아 산육신으로 모셨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허궁애기본풀이>의 내용이 저승과 이승을 왕래하는 화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오인숙 심방 및 강순선 심방이 “차사본풀이에서 동방세기 다음에 불려진다”는 증언은 이 본풀이의 제의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이다. 그렇다면 <차사본풀이>에 허궁애기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차사본풀이>는 이승의 강림이가 뛰어난 용기와 지혜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이승으로 데려와 사건을 해결해주고 저승차사가 되는 것이다. 강림이가 저승차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풀이의 구성은 갖추게 된다. 하지만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삼천갑자 동방세기를 잡아오는 이야기가 첨부된다. 동방세기는 천도실(天桃實)을 세 개 따먹어 삼천년을 살게된다. 하루는 스물 난 사람으로 변신하여 저승에선 동방세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¹¹⁰⁾ 이로 인해 저승에서는 저승법도를 어긴 동방세기를 지혜가 뛰어난 강림차사가 잡아온다. 이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부에 기록된 목숨보다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를 실행하는 차사신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강림차사의 관점에서 보면 허궁애기도 저승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결국 저승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저승과 이승을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자유로이 왕래했으나 이승 닭이 울기 전에 저승으로 와야하는 조건을 어겼다. 따라서 허궁애기는 저승으로 잡혀가게 된다.

다음으로 “허궁애기”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와 아기들을 돌보는 것은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도 이승의 현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초월적인 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곳을 할 때 조상을 잘 못 모셨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생겼으며 이들을 잘 모셔야 우환이 사라진다는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조상은 집안에 먼저 돌아가신 분 전부를 말한다. 특히 비명횡사했거나 객사한 조상들은 많은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왕맞이 제의 때 각별히 모시게 된다.

이렇게 곳에서 <허궁애기본풀이>가 <차사본풀이> 다음에 불려짐으로서 차사신의 위엄과 저승법도의 엄격함을 신앙민들에게 심어주며 죽은 조상이 이승의 현상에 개입할 수 있음제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살펴본 세 개의 특수본풀이들은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110) 진성기, <특수본풀이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12쪽.

<표8: 세 특수본풀이 내용 및 제의 비교>

본풀이 분류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
채록 수	2편	2편	5편
내용	· 오날이가 원천강으로 이계여행을 떠나 물음들을 해결해 주고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한다. · 부인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남편을 죽게 만들고 원천강을 보며 산다.	이승에서 악행을 저지른 세민황제가 이승 빛을 갚지 못하자 매일, 장삼의 도움으로 이승 빛을 갚고 이승으로 돌아와 선행을 행한다.	허궁애기가 저승과 이승을 오가다가 이웃할머니의 피임으로 저승으로 가는 시간을 어겨 다시는 이승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된다.
제의	신긋의 일월맞이	시왕맞이 중 차시영가 질칩	시왕맞이 중 차사본풀이

그동안 세 본풀이들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불려지고 있지 않으며 제의를 알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현지조사와 본풀이의 분석을 통해 제의 및 신격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본풀이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고 제주도 본풀이로서 본격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곳에서 신격을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삽화로서 불려지거나 제의가 사라져 현재 곳에서 구연되지 않는 본풀이로 정의할 수 있다.

4. 제주도 무속에서의 세 특수본풀이의 특징

앞장에서 세 특수본풀이들의 화소를 분석하고 소실되어버린 제의를 찾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제주 무속에서 이 특수본풀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원천강본풀이> : 무신격의 세속화

<원천강본풀이>는 심방이 되는 과정에서 불려졌던 본풀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록된 두 개의 본풀이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9: 원천강본풀이 각편 자료>

(가)박봉춘 구연본	(나)조술생 구연본
오날이가 강님드름에서 솟아났다.	원천강의 남편이 왕이 되려고 한다.
학의 도움으로 살았다.	나라에서 원천강 남편을 죽이려 하자 장독을 파고 들어가 공부를 한다.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오날’이라고 지워준다.	나라에서 피를 내어 부인이 남편이 있는 곳의 독을 열게 하여 남편은 잡혀간다.
부모국이 원천강임을 알았다.	남편이 잡혀가면서 원천강이나 보며 살도록한다. 부인은 그 후로 원천강이라 한다.
장상, 연꽃, 뱀, 매일을 만나 여러 문제를 물음 받는다.	
세 궁녀를 만나 지혜와 축도로서 물을 대신 퍼준다.	
원천강에 도달하였으나 문지기에 의해 들어가지 못해 운다.	
부모를 만나 물음들을 모두 해결해 주고 옥황의 신녀가 되어 인간에 강림하여 절마다 원천강을 등사한다.	

(가)의 박봉춘본이 “오날이”가 원천강을 찾아가는 이계여행담의 구조라면 조술생본 (나)는 “부인”의 팔자 이야기이다.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에는 신화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나)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두 각편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먼저 박봉춘본을 살펴보면 “오날이”가 찾아가는 원천강은 신화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오날이”의 부모만이 사는 곳이라기 보다는 천상계의 제신(諸神)들의 거처라 할 수 있다.

매일이느소원성취한다더라만은

원천강신인들은넘우무정라

-중략-

박정현문직이야,무정현신인들아

그리웁던어머님아,그리웁던아버님아

-후략-111)

“오날이”는 심방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다. 그녀는 이계여행을 통해 심방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어려운 이계여행을 통해 도달한 종착지는 원천강이라는 곳이다. 그런데 이 원천강이라는 곳은 단지 “오날이”의 부모만이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 제주도에서 심방이 되면 제신들을 모셔야 하는데 보통 1만8천 신을 모신다고 한다. “오날이”가 찾아가는 원천강도 이렇게 심방이 모셔야 할 제신들이 거처하는 “천상계”이다. 제주도 곳에서 신을 청할 때 “신느립서”¹¹²⁾라는 말을 하거나 대나무로 만든 큰대에 천을 연결한 다리를 통하여 안으로 신을 모셔오는 것을 보면 제신들의 거처가 천상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밑줄 친 “원천강신인들”로 표현되는 단어를 통해 원천강에 있는 신들이 “오날이”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날이”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도달한 곳은 결국 일반신들이 거처하는 천상계인 것이다. 이는 제주도 무속에서 당신들이 마을의 각 당에 거처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신들로 대변되는 신들은 천상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11) 赤松智晟, 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297쪽.

112) 신이여 내려오십시오

다음으로 제주도 무조신(巫祖神)의 내력담인 <초공본풀이>에서 무당이 되는 “유정승 댁님애기”와의 비교이다. “유정승 댁님애기”도 여섯 살 나는 해에 육한 대사가 지나가다 준 엽전을 갖고 놀다가 일곱 살에 무병이 들어 일흔이 넘도록 사경을 헤매나 결코 심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흔 일곱에 장자집의 무남독녀가 죽어가자 새남굿을 해주려 하니 무악기도 없고 무구도 없어 결국 무조신인 삼시왕에게 신굿을 받는다. 신굿을 받은 후 무당서를 받아 통달하고 무구, 무악기까지 받아 최초의 심방이 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최초의 심방의 내력을 말함으로써 심방들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증명과 신성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천강본풀이>의 경우는 심방의 가장 일상적인 기능¹¹³⁾중 하나인 점사적 기능을 보여주는 신화라는 것이 부각되어 있다. 즉 점술책인 원천강이라는 점사책과 심방의 점술 기능이 까닭이나 근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골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날이”와 “유정승 댁님애기” 모두 사제자의 길을 가는 심방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유정승 댁님애기”가 무조신과 관련된 최초의 심방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날이”는 심방의 점사적 기능이 부각된 세속화된 심방들의 신화라 할 수 있다.

각편 (나)의 “부인”은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원천강을 보는 팔자를 타고 나게 된다.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부인”의 이야기에는 뚜렷한 신화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하늘에 올라가 왕이 되려는 부분정도가 신화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이야기는 (가)보다 더욱더 세속화된 심방 팔자이야기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에서 인간의 팔자에 관한 본풀이는 <삼공본풀이>로 그 연원을 밝히고 있다. <삼공본풀이>가 “전상(前生)”에 대한 신화를 통해 단골들의 일반적인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원천강본풀이>는 특수계층인 심방 운명에 대한 “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삼공본풀이>와는 달리 심방이라는 사제자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초공본풀이>의 유정승 댁님애기와 같이 최초의 무당의 이야기로서 신성성을 가지기보다는 (가)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심방이 되는 과정인 “오날이”의 이계여행을 통해 신성성이 많이 상실되었고 (나)에서는 심방팔자 이야기로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3) 심방은 사제적 기능, 점사적 기능, 영매적 기능, 축의적 기능, 연예인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4.2. <세민황제본풀이> : 고소설의 수용과 무속신화적 성격의 퇴화

<세민황제본풀이>는 《당태종전》의 서사 구조를 차용하였다. 죽은 세민황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환생담이 중심이다.

<표10: 세민황제본풀이 각편 자료>

박봉춘 구연본	조술생 구연본
이승에서 죄를 많이 지은 세민황제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오늘은 달도 좋고 날도 좋은 날이다.
죽은 백성들이 몰려와 복수하고, 빼앗긴 돈을 찾아달라고 한다.	매일과 장삼이 죽어 저승에 들어가니 풀썩 거슬린 것이 창고에 가득찼다.
이승사람 매일장상의 돈을 꾸어 갖고 이승으로 나온다.	세민황제가 저승에 가니 빚을 못 갚아 매일과 장삼에게 꾸 갚는다.
저승 케에는 벗짚 한 묶음밖에 없어 이승에 나가서 적선을 해야한다.	인간으로 돌아온 세민황제가 매일이와 장삼이를 찾아 돈을 갚으니 영암 덕진산 깊은 물에 덕진다리 놓았다.
세민황제는 적선지도를 의논하여 호인대사에게 극락세계의 팔만대장경을 내어오게 한다.	덕진다리 놓아두고 만민에게 적선(積善)을 받아 극락세계 가고 저승부자 되었다.
호인대사는 빠른개비를 만나 극락세계로 가 팔만대장을 얻어 세민황제에게 바친다.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매일장상을 불러 칭찬하고 적선활인지도를 행한다.	

내용적 측면에서 세민황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통해 이계 여행담이라 볼 수 있으나 세민황제가 이승으로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여행담이라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다.¹¹⁴⁾ 그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생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속신화에서 환생을 하는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다. 이들은 악인의 계략에 걸려 억울하게 죽는다. 그렇지만 주인공들이 서천서역국에서 생명꽃을 얻어옴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 신으로의 좌정을 맞게되거

114) 이계여행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민황제는 반대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가고있으며 여행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나 아무런 사건이 없다.

나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¹¹⁵⁾

<표11: 환생담이 나오는 일반신본풀이 자료>

본풀이	죽이는 자	죽음을 당하는 자	재생시키는 자
초공본풀이	삼천선비	즌지명왕애기씨	젯부기삼형제
이공본풀이	장자	원강아미	한락궁이
차사본풀이	과양생부부	버무왕 세 아들	강림이
문전본풀이	노일저대	조정승 딱님애기	칠형제
세경본풀이	자청비	정수남이	자청비
	선비	문도령	자청비

환생담이 나오는 일반신본풀이를 통해 보았을 때 세민황제는 이승에서 악행을 행하다가 죽은 이로서 환생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제주도 무속에서 악인들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 응징은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주인공은 선의 대변자로서 악을 응징한다. 그런데 <세민황제본풀이>에는 선과 악의 대립이 뚜렷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악이 세민황제라면 대립되는 이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다수의 백성, 피해자가 있을 뿐이다. 선을 행하는 이가 매일, 장삼이지만 그들은 세민황제와 대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를 만족하는 갈등의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소설인 《당태종전》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들은 본토의 설화를 기본구조로 하여 나름대로 신화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민황제본풀이>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당태종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변화를 시키지 않아도 제의에서 신앙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적선(積善)이라는 불교적 도덕률¹¹⁶⁾과 상통한다. 절대군주로 군림했던 세민황제도 결국은 이승에서 적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장삼에게 재물을 꾸어야 한다는 것과 다시 이승에서 적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개 필부인 신앙민들에게 이승에

115) <세경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인 자청비가 겁탈하려는 정수남이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어 특이하다.

116) 고대경, <살아가는 이야기>,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256쪽.

서 선행을 배풀도록 하는 권선징악적 의식의 표현이다. 또한 악인인 세민황제도 적선을 행하면 죄가 사한다는 것을 통해 죽은 자들의 악행을 산 자인 신앙민들이 굿을 통해 면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굿에서 《당태종전》이 무속적인 변형을 통해 권선징악이 발현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권선징악과 적선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본토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이공본풀이>나 <세경본풀이>와도 다르다. <이공본풀이>는 “안락국태자경”이나 《안락국전》, <세경본풀이>는 《양산백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이 두 본풀이는 나름대로 제주도의 무속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독특한 신명으로 불리며 신격 부여를 위해 후반부에서 내용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이 초래된 이유는 독립적인 제의의 확보와 관련을 지을 수 있다. 두 일반신본풀이가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여 신격의 성격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세민황제본풀이>는 독립적인 제의가 없이 차사영가 질칠 때 삼화로 불려지기 때문에 서사구조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4.3. <허궁애기본풀이> : 저승과 이승 구분의 재인식

<허궁애기본풀이>는 특수본풀이로 다루려는 본풀이 중 가장 많은 각편인 다섯 편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본풀이를 알고 있는 심방들이 있고 일반 단골에게서도 체록이 되고 있어 굿판에서 중요한 본풀이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풀이로 존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을 추측한다면 제주도 굿에서 본풀이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단골들에게는 널리 회자될 정도의 정서적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은 본풀이의 고정적 형태인 제주도의 초감제 때 불려지는 <천지왕본풀이>의 잔형이다. 초감제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천지혼합의 상태에서 천지개벽 후 대별왕과 소별왕의 저승, 이승 차지 후 성인들이 도업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하늘의 해와 달이 두 개 때 있어서 사람들은 타죽고 얼어죽는 기상이변의 상황을 대별왕과 소별왕이 화살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동해바다에 떨어뜨려 현재의 상태로 만든다.

<표12: 허궁애기본풀이 각편 자료>

각편 공통화소	이오생 구연본	강을생 구연본	이방아 구연본	윤추월 구연본	오인숙 구연본
	허웅아기가 살림숨씨가 좋아 저승에 서 살림을 돌 보도록 차사 를 보낸다.	콩대기팔대기 이야기 ※ 허궁애기 는 팔대기의 어머니이다.	해와 달이 두 개 있어 사 람 들 이 타죽고, 열 어죽었다.	삼성만이 있 는 때에 해와 달이 두 개 있어 사 람 들 이 타죽고, 얼어죽었다.	
	허웅아기가 어 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에 게 인정 걸어달라 도 하였다가 거절당하나 언 니가 걸어준다				
	차사님이 오자 밥을 올리고 저승에 갈 수 없다고 한다.				
1. 이승에서 자 식 낳고 잘 살 다가 저승으로 간다.	×	콩대기가 자 식 낳고 잘 살다가 저승 으로 간다.	허웅아이가 이승에서 자 식 낳고 잘 살다가 저승 으로 간다.	허웅아기가 이승에서 자 식 낳고 잘 살다가 저승 으로 간다.	허 궁 애 기 가 이승에서 자 식 낳고 잘 살다가 저승 으로 간다.
2. 아이들 생 각에 근심이 되어 운다.	남편과 아들, 딸이 있어 못 간다고 한다.	○	무 명 짜 기 를 하 며 ○	무 명 짜 기 를 하 며 ○	○
3. 밤에는 이 승 가고 낮 에는 저승 오라고 하여 밤에 아이들 을 돌본다.	저승 닭이 울 면 이승 오고 이승 닭이 울 면 저승 가라 고 한다.	○	○	○	칠판에 침을 뱉 어놓고 야삼경 에 인간에 가고 침 마르기 전에 저승으로 오라 한다.
4. 이웃 할머 니가 아이들 이 옷도 깨끗 하고 머리도 잘 빗어있어 의심한다.	동 네 사 람 ○	동 네 사 람 ○	○	○	청태산 마구할 마님 ○

5. 아이가 어머니가 밤마다 저승에서 내려온다고 말해버린다.	○	○	○	○	○
6. 실로 아이와 할머니를 연결하여 알린다.	할머니를 데려온다	○	○	○	○
7. 할머니가 찾아와 허궁애기가 저승으로 못가게 말린다.	○	○	×	집에 가시 를 쌓아 사람들이 못 오게 한다.	○
8. 할머니는 저승 차사가 못 오게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숨긴다.	○	○	×	할머니가 허궁애기를 못 나가게 문을 잠근 다.	고방에 들어 가 독 안에 숨겨놓는다.
9. 저승차사가 지붕으로 들어와 허궁애기의 혼을 뺏어 가버려 허궁애기는 죽어버린다.	○	○	○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 저승 갈 시간을 잊어버리고 늦게 저승 에 간다.	○
10. 그 법으로 이 세상에 인간은 죽으면 다시 이승으로 못 내려온다.	○	○	○	열시왕은 저승 비밀 을 말할까 봐 귀신 말 을 못 알아 들게 하였 다.	저승과 이 승을 구분 하였다.
				대별왕이 해와 달을 하나씩 쏘 아 떨어뜨 리고 귀신 들이 말을 못하게 하 였다.	

				소 법 하 고 입 에 이 승 말 못 하 게 하 는 마 련 쌀 을 넣 어 일 을 하 는 다.	
--	--	--	--	--	--

이는 자연의 무질서가 질서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회복한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 차지 경쟁을 통해 이승과 저승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별왕이 부정적 방법으로 이승을 차지하여 이승은 무질서의 상태로 변하여 인간과 귀신의 관계가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승의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는 것은 저승의 대별왕이다. 대별왕은 인간과 귀신을 백근 저울에 달아 백근 차면 인간세상으로 차지 못하면 옥황으로 보내어 구분하거나 송진가루를 날려 귀신은 혀가 저려 말을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승과 저승 차지 시험의 신화적 의미는 이제 인간 세상에 삶과 죽음의 세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⁷⁾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나는 해와 달이 두 개인 것이나 인간과 귀신이 서로 말을 못하게 하는 <천지왕본풀이> 잔형은 삶과 죽음의 세계가 오랜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고정적 형태의 잔형이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나는 이유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원칙적으로 창세과정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허궁애기는 저승으로 가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오생 구연본을 보면 허궁애기는 잡으러 오는 차사들에게 인정을 걸어 저승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아기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행위의 이면에는 저승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곳이란 저승관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궁애기는 염라왕의 특별한 배려로 이승과 저승을 왕래할 수 있었으나 밤에만 이승으로 와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 활동의 시간적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 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저승과 이승의 구분이 명확한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이승으로 왔다는 것이 발각된다

117)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02쪽.

면 이승사람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¹¹⁸⁾ 하지만 허궁에
 기는 밤이 가기 전에 저승으로 되돌아오는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 약
 속을 어기는 것은 허궁애기의 자의적 판단이기보다는 제 삼자인 이웃할머니에
 의해 행해지게 된다. 문맥상 이웃할머니는 허궁애기가 다시 이승으로 오지 못하
 게 만드는 악인으로 비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화적 관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녀는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불명확한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로 인해 저승과 이승의 구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해진다. 대별왕과 소별
 왕의 인세차지경쟁이 이승과 저승을 일차적으로 구분한다면 이웃할머니는 남아
 있던 이승과 저승의 불명확성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명확해진 이후 죽은 사람은 다시는 이승 사람과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굿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허궁애기본풀이>가 불려지는 제
 의가 <차사본풀이> 다음이라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차사는 죽은 이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주로 하나 굿이 있으면 저승에서 죽은 이들을 이승의
 굿판을 데려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무속
 적 사고의 소산이다. 죽은 사람은 굿이란 제의에서 심방을 통해 이승의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굿을 통해 죽은 이들과의 교감은 수
 없이 가능한 것이다. 표면상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죽은 사람은 굿을
 통해 이승의 사람과 교통할 수 있다. 이런 무속적 사고는 본토에서도 찾을 수 있
 다. 함경도 망북굿에서 불려지는 <도랑선비·청정각시>신화에서 죽은 도랑선비
 가 청정각시를 만나러 밤에 온다고 하는 것은 허궁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낮과
 밤을 번갈아 오고가는 것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¹¹⁹⁾ 그러나 <도랑선비·청정각
 시>가 부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죽어서도 만남을 이루는 망북굿의 핵심을
 드러내는 반면 <허궁애기본풀이>는 저승법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은 단골들에게 확실한 저승관념을 정립하
 는 한편 굿을 통해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인 “허궁애기”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단골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118) 귀신은 음(陰)이 강한 밤에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들어 허궁애기가 밤에만 내려왔
 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영혼
 을 저승에서 데려오는 제의가 밤에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제의적 측면으로도 설명
 할 수 없다.

119) 김현선, 《국비문학연구》,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한국구비문학회, 1999, 242쪽.

역할을 한다. 이는 모정의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면에서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식들을 이승에 남겨놓고 저승으로 떠나야 하는 어머니의 슬픔은 단골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된다. “허궁애기”가 이승으로 돌아와 아기들을 돌보는 데서 많은 기쁨을 느꼈을 것이며 다시 저승차사에게 잡혀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을 때에는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런 구성은 우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골들을 의식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단골들과의 정서적 교감은 이 본풀이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 채록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개의 특수본풀이들은 화소나 신격이 일반신본풀이인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차사본풀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성성에서 차이점이 드러난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¹²⁰⁾ <차사본풀이>가 원시, 중세 서사시로¹²¹⁾ 종교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특수본풀이들은 종교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성에 더욱더 가깝다. 즉 세 특수본풀이들이 일반신본풀이와 같은 성격의 신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과 더욱더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신본풀이들이 창세 과정과 이승과 저승의 구분, 무조신에 대해 고차원적이며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었다면 특수본풀이들은 현실적이며 단골과 밀착된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이승에 놔두고 먼저 저승으로 간 “허궁애기”라는 여인이나 부모를 찾으러 떠나는 고아 “오날이”, 남편을 죽게 만든 “부인” 등은 단골들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슴아픈 일들이다. 그들은 대감 집 딸도 아니며 나라의 공주도 아닌 주변의 갑남을녀이다. 이런 주인공과 서사의 전개는 특수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와는 달리 더욱더 구체적인 생활서사시로 변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20) <초공본풀이>에 나온 불교와 유교 갈등의 사회상을 보았을 때 고려말, 조선초로 중세서사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1) 조동일, <제주도>,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5. 특수본풀이의 변화 및 소실

굿은 신과 신앙민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사제자가 존재해야 가능한 종교활동이다. 그리고 신의 이야기인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 굿판에서 단골들에게 불려진다. 따라서 본풀이가 계속 구연되기 위해서는 굿판이 살아있어야 한다. 굿판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굿판을 지탱시키는 신앙민인 단골과 사제자인 심방의 상호협력의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한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굿판은 깨지고 본풀이는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특수본풀이의 변화 및 소실의 과정에 내부적으로 신, 심방, 단골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사회사적 변화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해명함으로써 제주도 본풀이의 변화 과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 굿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굿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다른 본풀이와의 경쟁과 전승의 단절에 의해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특수본풀이들은 굿에서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본풀이 안에 불려지는 이야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수본풀이들이 일반신본풀이에서 삽화로서 불려지는 경우이다. <세민황제본풀이>와 <허궁애기본풀이>가 차사영가 질칠 때 불려지거나 <차사본풀이>다음에 불려지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유사한 본풀이가 한 제의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제의 안에 중복되는 신의 내력담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더 완성된 이야기가 본풀이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차사본풀이>는 강림이가 차사가 되는 완벽한 서사구조를 가진 반면에 동방세기이야기나 <허궁애기본풀이>는 차사신으로서의 내력담을 얘기할 수 있는 서사구조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둘은 강림이의 이야기에 첨가되는 삽화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삽화로 존재하는 본풀이가 완벽한 서사구조를 가진 본풀이에 비해 그 소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삽화로만 이루어져 있는 본풀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함경도 지역 망목굿에서 구연되는 무가인 “생굿”을 살펴보자.¹²²⁾ 생굿은 여섯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는데 창세신화, 성주신화, 득남형 설화, 에밀레중 기원형 설화, 장자뚱형 전설, 제석본풀이가 그것이다.

122) 임석제,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255-318쪽.

창세신화는 석가와 미륵이 인세 차지를 하는 이야기이다. 석가와 미륵의 경쟁에서 석가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승리를 하고 결국 세상에 해와 달이 두 개 생기자 서천국의 부처에게 물어 하나씩 제거하게 된다.

성주신화는 목수인 강방택이가 천상에 부름을 받고 궁궐을 지으러 올라가서 모시각시와 내기를 벌이는 이야기이다. 내기에 진 강방택이는 옥황상제에게 병을 줘 성주 안택을 하자 병이 낫게 된다.

득남형 설화는 청애선비 부부가 황금산 절에 백일 기도를 드려 환애기라는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황금산 절로 들어가 중이 된다. 환애기가 춤을 추다 다른 중에게 얻어맞고 떠나자 황금산 노스님이 절이 폐허 될 것을 알고 안혜산 금강절에 절을 세운다는 이야기이다.

에밀레종 기원형 설화는 종각 설립을 위해 시주를 다니던 중이 원맥이네 집에 가서 세 살 먹은 원맥이의 수저를 얻어 종각을 지었으나 실패하자 원맥이를 데려와 놓자 성공하는 이야기이다.

장자못형 전설은 서인님이 천년 장재비집에 시주를 갔다가 장재비에게 문전박대를 받아 장자집은 물에 잠기고 장자부처는 물오리가 되나 머느리는 시주를 하여 도망가다 뒤를 돌아봐 각시바위가 된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제석본풀이는 서인님이 만년 장재비집에 동냥을 가 세주애기와 관계를 맺어 아들 셋을 잉태시킨다. 세주애기가 아들들과 함께 안혜산 금강절에 서인님을 찾아가 마술¹²³⁾이 되고 아들 삼형제는 제석이 되는 이야기이다.

위의 여섯 이야기 중 성주신화를 제외하고는 불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창세 과정부터 석가를 등장 시켜 불교적 윤색을 하였으며 줄곧 불교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차사가 다른 삼화에 등장하면서도 차사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삼화가 여러 개 묶여 있으면서 하나의 본풀이를 형성하는 것이 원래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처럼 창세신화, 성주신화, 장자풀이, 제석본풀이 등으로 나뉘어져 각자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 원래적인지는 확답할 수는 없다. 다만 한반도의 주변지역으로 고형의 무가라 분류되는 함경도 지역과 제주도의 곳에서 이렇게 하나의 본풀이에 여러 개의 삼화로 된 본풀이가 발견된다는 것은 무가의 형성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예일 것이다. 석가, 서인님이라는 공통

123) 곡식의 신

적인 등장인물 및 불교적 소재로 묶여 있다가 분화되어 각자의 독립적 제의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특수본풀이처럼 독립적의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삼화로서 존재하다 소실되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심방들 간의 본풀이 전승이 단절된 경우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신곳에서만 불려지는 한정된 본풀이이다. 신곳은 심방이 평생 세 번을 행하게 되는데 입무 할 때 행하는 초신질, 어는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하는 이신질, 마지막으로 최고의 기량일 때 하는 삼신질이 그것이다. 이는 다른 곳이 수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 비해 그 횟수가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곳과 같은 특수한 곳은 뛰어난 심방들이 주로 행하게 된다. 심방이 심방을 위해 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웬만한 기량을 가진 심방들은 하려는 엄두도 못 낸다. 오직 큰심방이라 칭할 수 있는 심방들만이 행하고 있어 다른 본풀이들에 비해 구연자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 제주도 본풀이 중 곳에서 처음 불려지는 <베포도엄침>과 <천지왕본풀이>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고작 몇 명만이 이 두 본풀이를 구연할 수 있다. 이 두 본풀이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초감제 때 불려짐으로 아무 심방이나 부르지 못하고 큰심방만이 부르게 된다. 따라서 큰심방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들은 이 본풀이들을 전승받지 못하게 됨으로서 소실된다. 이렇게 <원천강본풀이>는 곳 자체가 적으며 곳을 행할 수 있는 심방도 한정되어 있어 그 소멸이 다른 본풀이에 비해 훨씬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곳의 외부적 요인이다. 제주도의 곳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유하고 다양한 형태의 본풀이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본풀이들은 생활의 변화를 통해 소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사항들이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무속에 대한 관청의 단속으로 곳을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제시대 때 많은 당이 파괴되었으나 광복이후 경신회가 조직되면서 다시 곳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무구를 압수하고 곳 단속을 하였다. 당시 곳은 미신이다 하여 근대화의 걸림돌이며 타파의 대상이지 전통계승의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심방들은 언제나 숨어서 곳을 했고 단골들도 내놓고 곳을 할 수가 없었다한다. 이런 상황에서 곳의 모든 제차를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곳의 제의를 모두 실연하기 위해서는 심방들은 “두 일레 열나홀”이 걸

려야 한다고 한다. 즉 밤낮으로 해도 칠일은 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최대로 해도 일반 가정에서는 5일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제차만을 행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중요하지 않은 특수본풀이류들은 불려지지 않게 되었으며 전승되지 못함으로써 소멸되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단골 생활의 변화로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옛날에 제주도민의 생활은 반농반어의 형태에 축산을 겸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농업을 관장하는 신과 바다를 관장하는 신, 가축을 보호하는 신들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세경신이나 영등신, 요왕신, 산신 등의 내력담은 중요한 본풀이였다. 하지만 산업기반의 변화는 이들이 믿고 있는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경신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굿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다. 또한 도시화된 제주시 및 서귀포에서는 이웃간의 마찰을 우려해 굿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자 한다.

이렇게 제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특수본풀이는 소실되었고 나아가 굿 자체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6. 결론

본고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제주도 특수본풀이들을 분석하여 제의적 관련성을 찾고 무속적 제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수본풀이가 1930년대, 1960년대 채록되었던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한경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특수본풀이가 최초로 채록이 되었을 1930년대의 제주도의 무속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결과 1930년대 이전에 제주도 무속은 전 지역을 통해 고르게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카톨릭의 수용은 한경면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의 무속을 급격하게 소실되게 하고 있다. 동쪽 지역은 전승력과 영향력이 강한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아직도 굳건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무속의 채록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1950-197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채록한 제주도 무속을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하였다.

특수본풀이는 이러한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본풀이로 12편이 전지역에서 다양한 심방들에 의해 구연되어졌다. 그 중 8편은 현재 제의에서 불려지고 있거나 그 신격을 알 수 있는 것들로 서사성이 없이 신명만을 나열한 것들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삼두구미본풀이>는 시신을 먹는 괴물인 삼두구미신을 물리치는 제주도만의 풍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본풀이는 서사성을 가진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에기본풀이>이다.

이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구연자들을 살펴보았다. 구연자인 심방들을 살펴보는 것은 나이, 성별, 무가계, 무업 습득과정 등은 본풀이 자료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1930년대 조사된 박봉춘 심방은 21대째 무업을 하고 있는 세습무로서 남제주군 남원읍 예촌마을을 기반으로 무업을 전승하고 있었다. 조술생 심방은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출신으로 당대에 입무한 심방이다. 강을생 심방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그리 알려진 심방은 아니나 임석재 선생에게 많은 무속을 제보한 것으로 보아 기본적인 본풀이 구연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인숙 심방은 잊혀졌던 <허궁에기본풀이>를 제보한 심방으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를 기반으로 아직도 무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고부세습무의 형태이다. 이를 통해 특수본풀이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입무의 형태도 세습와 강신무 모두에게 채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천강본풀이>는 두 편의 각편이 채록되어 있다. 처음으로 “오날이”가 부모가 있는 원천강을 찾아 이계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다양한 화소들로 이루어졌는데 본토의 설화, 제주도 본풀이가 혼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본토의 구복여행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원천강”이라는 여인이 하늘의 왕이 되려는 남편을 죽게 만드는 이야기로 아기장수이야기와 유사하다. 이들 모두는 심방의 팔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신긋에서 불려지던 본풀이이다. <세민황제본풀이>도 두 편의 각편이 채록되어 있다. 소설 《당태종전》을 차용한 본풀이로 지옥에 떨어진 세민황제가 매일장상의 도움으로 환생하여 적선을 행하는 이야기이다. 권선징악적 의미를 지닌 본풀이로 차사영가 절칠 때 불려진다. <허궁애기본풀이>는 가장 많은 5편의 각편이 채록되어 있다. “허궁애기”가 저승에서 이승을 왕래하는 본풀이로 창세신화소인 저승과 이승의 구분이 나오는 고형의 본풀이이다. <차사본풀이>에서 동방세기 이야기 다음에 불려진다. 이는 차사신이 저승법도를 어긴 동방세기를 잡아오듯이 범을 어긴 “허궁애기”를 잡아오는 것으로 저승법도의 엄격함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곳에서 독립적인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적인 삽화로서 불려지거나 제의가 사라져 현재 곳에서 구연되지 않는 본풀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세 특수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에서의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원천강본풀이>는 제주도 무조신의 이야기인 <초공본풀이>와는 달리 신성성이 많이 탈락한 일반적인 심방의 본풀이이다. 이계여행담은 본토의 무조신인 바리공주와 관련되는 것으로 이계여행을 통한 무속과의 관련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소설인 《당태종전》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는데, 제주도 일반신본풀이들이 본토의 설화를 기본 구조로 하여 나름대로 신화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변화를 시키지 않아도 제의에서 의미를 신앙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속적 서사구조를 통한 권선징악은 발현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당태종전》을 받아들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허궁애기본풀이>는 저승과 이승의 왕래담으로서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일차적으로 구분하였다면 <허궁애기본풀이>는 이를 다시 구분 지

어주는 본풀이이다. 이렇게 저승과 이승의 구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죽은 자와 산자는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차사본풀이>에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곁을 통해 이승과 저승이 연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특수본풀이가 종교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성에 더욱더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신본풀이들이 창세 과정과 이승과 저승의 구분, 무조신에 대해 고차원적이며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었다면 특수본풀이들은 현실적이며 단골과 밀착되어 구체적인 생활서사시로 변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본풀이들은 제의 내부적으로 독립적 제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본풀이 안에서 삽화로 불려지고 있어 소실되어 버렸다. 또한 특수한 제의에서 소수의 심방들에게만 불려지고 있어 전승의 단절이 다른 본풀이에 비해 쉽게 이루어 졌다. 제의 외부적으로는 1980년도까지 이루어진 무속에 대한 억압으로 많은 제의가 사라졌다. 곁의 모든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칠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 억압적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의만을 행하다보니 중요하지 않은 특수본풀이들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단골들의 생활의 변화는 농경신을 비롯한 자기 생활과 관련이 없는 신을 더 이상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서구종교의 폭발적 증가 및 단골들의 고령화는 무속의 단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1.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9.
2. " ,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2001.
3.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4.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5. 일연, 최호 譯, 《삼국유사》, 홍신문화사, 1996.
6.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제주도편》, 조선인쇄주식회사, 1929.
7. 제주도청, 《제주도세요람》, 조선인쇄주식회사, 1935.
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9. " , 《남국의 설화》, 박문출판사, 1959.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3, 1980.
11. " , 《한국구비문학대계》 2-1, 1980.
12. " , 《한국구비문학대계》 4-2, 1981.
13. " , 《한국구비문학대계》 4-5, 1984.
14. " ,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1987.
15. " , 《한국구비문학대계》 7-8, 1983.
16. " , 《한국구비문학대계》 9-1, 1980.
17. " , 《한국구비문학대계》 9-2, 1981.
18. " , 《한국구비문학대계》 9-3, 1983.
1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20. " ,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21.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上》, 동문선, 1991.

2. 국내 문헌

1. 고대정,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2.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 김재용·이종주 공저,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1999.
4.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5. " ,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6. " , 〈함경도 무속서사시연구〉, 한국구비문학회, 1999.
7.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8.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9. " ,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10. 이경엽, 《셋김굿 무가》, 박이정, 2000.
11. 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12. 이수자, 〈무속신화 <원천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위상〉, 《한국 신화의 본질과 위상》, 한국구비문학회 추계 학술대회, 1997.
13. "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4.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5. " ,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16. " , 《한국민속논고》, 계몽사, 1986.
17. " ,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 1995, 집문당.
18. " ,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4.
19. " ,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1975.
2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21.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22. 진성기, 《남국의 민담》, 형설출판사, 1980.
23. " , 《남국의 신화》, 아림출판사, 1965.
24. " , 《제주도무속논고》, 제주민속연구소, 1966.
25. " ,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26. “ ”,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27.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빅벨, 2001.
28.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익사, 1981.
29.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30. “ ”,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 국외 문헌

1. 大林太良, 兒玉仁夫・權泰孝 역, 《신화학입문》, 새문사, 1999.
1. 赤松智城・秋葉隆 공저,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下》, 동문선, 1991.
2. 秋葉 隆, 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출판사, 1987.
3. “ ”, 심우성 역, 《조선민속지》, 동문선, 1993.
4.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마니즘》, 까치, 1992.

부록

〈허궁애기본풀이〉

구연자: 오인숙 심방 (1927년 생)

채록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채록일: 2002년 3월 26일

채록자: 김현선

표준어역: 강권용

(채록)

옛날 옛적에

허궁애기 서른 두살 나던 해월에

딸 삼형제 놔두고 인간 아기되어 저승에 들어사난

저승에서 비세굴이 울다 본다 헤어가니

염래대왕님이

“어떤 일로 우느냐?”

“우리집이 부모조상 없는 애기덜 딸 삼형제 버려두고

치마작에 덮는 애기덜 두어돈 저승오난 저승에서 살수가 어습네다”

“그러며는 칠판에 꿈을 바까놓고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에

인간에 가고 애기덜 머리귀밥 출려두어 두고 그 꿈 모르기 전에 저승으로 들어
올 수 있겠느냐”

“있습네다”

그러거든 가랜 해연애 이승덜에 보내시미

2,3일 동안 애기덜 머리 기밥 출려두고 저승으로 들어산다.

동네에 청태산이 마구할마님이 호를 낚은 이 애기덜 보고

“너테덜은 어떠영허난 부모조상 없어도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하고 밥은 누
게가 출려주난 먹겠느냐”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 되민 어머니가 저승에서 오랑 우리덜 깨끗허게 다 출려주고 다시 저승덜에 가옵네다”.

“오늘밤도 오겠느냐?”

“옵네다.”

“오늘밤에 오거든 날고라 고라주면은

너네 어머니 돈돈허게 잘 곱저주마”

“어서 길랑 기영헝서”

그날밤인 어머니가 오랴구나 이 애기덜은 할마님안티 가고 어머니 오라수텐 고라부니

할마님은 오란

“설은 애기야 매날 밤이 가지말라 나가 돈돈히 잘 곱저주마”

안고팡에 들어가고 지새독 소곶에 디려노안 뚜깨 더꺼간다.

저승에선 시간 넘어근 칠판에 꿈이 몰라도 아니 들어산다

“강림이야 이승 가고 저 허궁애기 돌아오라 시간이 넘는디 아니오는구나”

이제는 이승덜에 강림이가 오랴구나

허궁애기 돌아가져 오랴구나 허궁애기 본매본단

지봉상상 조치머루 이꾸성냥 올라가고 안고팡을 곱어보난 지새독 속에 디려놓고 항두께를 더꺼꾸나 몸체는 돌아갈 수 어섯더라 본전만 빠아전 저승덜에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허궁애기가 다시야 인간에 돌아오지 못해엿구나 그때거치 이 밤 저 밤 밤중 야삼경에 인간덜에 혼 번 죽은사람 돌아오는 법이 이시민 지금도 그럴수가 이실건디

지금은 혼 번 가민 다시 혼 번 저승에서 이승 못 내오는 법이 법치법이 마련이 되엿습니다.

(표준어역)

옛날 옛적에

허궁애기가 서른 두 살 나는 해에

딸 삼형제 두고 인간으로 저승에 들어가니

저승에서 슬픈 새 같이 울어가니
 염라대왕님이
 “어떤 일로 우느냐?”
 “우리 집에 부모 없는 아기, 딸 삼형제 버려 두고
 치마폭에 덮는 아기들 두고 저승에 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칠판에 침을 뱉어놓고 이 밤, 저 밤 삼경에
 인간에 가고 아기들 머리맡에 밥 차려놓고 그 침 마르기 전에 저승으로 들어
 올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 하여 이승에 보내니
 2, 3일 동안 아기들 밥상 차려놓고 저승으로 들어온다.
 동네에 청태산이 마구할머니가 하루는 이 아기들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부모 없어도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깨끗하고 밥은 누가
 차려주니 먹느냐?”
 “이 밤, 저 밤 삼경이 되면 어머님이 저승에서 와서 우리들 깨끗하게 다 차려
 주고 다시 저승으로 가옵니다”
 “오늘밤도 오겠느냐?”
 “웁니다”
 “오늘밤에 오거든 나에게 말해주면 너희 어머니 단단하게 잘 숨겨주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 날밤엔 어머님이 왔구나. 이 아기들은 할머니에게 가서 어머님 왔습니다 말
 하니
 할머니가 와서
 “서러운 아기야 매일 밤에 가지 말아 내가 단단히 숨겨주마”
 안 고방(庫房)에 들어가고 장독 안에 놓고 뚜껑 덮어간다.
 저승에선 시간 넘어 칠판에 침이 말라도 아니 들어온다.
 “강림이야 이승 가서 저 허궁애기 데려와라 시간이 넘었는데 아니 오는구나”
 이제는 이승에 강림이가 왔구나
 허궁애기 데려가려 왔구나 허궁애기 본매본단
 지붕 상마루 올라가서 안 고방을 열어보니 장독 속에 놓고 뚜껑을 덮어구나

몸체는 돌아갈 수 없어서 혼만 빼어 저승에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허궁애기가 다시는 인간에 돌아오지 못했구나. 그때까지 이 밤, 저 밤 밤 중 삼경에 인간에 한 번 죽은 사람 돌아오는 법이 있었으면 지금도 그럴 수가 있을 건데 지금은 한 번 가면 다시 한 번 저승에서 이승 못 내려오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ABSTRACT

The study of *Teuksu-bonpuri*
- putting basis on <*Woncheongang-bonpuri*>,
<*Seminhwangje-bonpuri*>, <*Heogungaegi-bonpuri*>--

Gang Gwon Y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purposed to examine to sacrificial significance of the *Teuksu-bonpuri* through *Woncheongang-bonpuri*, *Seminhwangje-bonpuri* and *Heogungaegi-bonpuri* which have been recorded in shamanism of Jeju-do.

Actually *Bonpuri*, called in shamanism of Jeju-do, are generally classified into *Ilbansin-bonpuri*, *Dangsin-bonpuri*, *Josangsin-bonpuri*. Some *Bonpuri*, whereas, which don't come under *Bonpuri* are termed *Teuksu-bonpuri*. People researched them twice in 1930s and 1960s. Only a few pieces of *Teuksu-bonpuri*, however, were discovered, and they were not even transmitted to the present *Gut* in Jeju-do.

From the several times of spot researches, I could find a *Simbang* who knew *Teuksu-bonpuri*. It is proved that *Teuksu-bonpuri* were being sung in the past *Gut* in Jeju-do. And *Heogungaegi-bonpuri* was found from that *Simbang*. It shows that *Teuksu-bonpuri* was not discovered accidentally, but narrated orally by *Simbang*.

Woncheongang-bonpuri gives two stories. One is *Onari*'s travels, and *Onari* leaves to *Woncheongang* to look for his parents. The other is *Woncheongang*'s story, and *Woncheongang* makes her husband death. This

Bonpuri is not only a song which was sung by someone who was born under *Simbang*, but a sort of *Simbang*'s legend in which one of the *Simbang*'s roles, telling fortune, is shown.

There are two stories which describe *Seminhwangje* in *Seminhwangje-bonpuri*. Getting help from *Maeiljangsang* who lives this world, he is born again and gives good deed. When people perform *Chasayeonggajilchil* in *Gut*, this *Bonpuri* was sung to open the hell-door. Through this story in which a villain *Seminhwangje* was forgiven his sins by doing good, it analogizes people who pray forgive sins of the dead in *Gut* to it.

In *Heogungaegi-bonpuri*, *Heogungaegi* who went to the other world comes and goes to this world, but she comes back to this world no more because her breaking promises. This *Bonpuri* was sung next the *Chasa-bonpuri Dongbangsegi-bon*. It has an idea that the other world is a place where people never come back so that it makes the in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definite. This *Bonpuri* also shows shamanist idea that the dead communicates with the alive through *Gut*. In plot, material affection generally forms *Gut* as a mother, *Heogungaegi*, is come on the story, and it also could be an intentional creation to be conscious of women.

Finally let me see some internal and external reasons why *Teuksu-bonpuri* was extinct.

The internal reasons are that *Teuksu-bonpuri* didn't get an independent position in *Gut*, and it was sung by a few *Simbang* in special *Gut*, so that it couldn't be a general *Bonpuri* and transmitted to other *Simbang*. Otherwise the external reasons are that *Gut* is socially tended to be repressive, and *Dangol* don't support the Gods any more because of changing their life. So, *Gut* in Jeju-do is now in crisis as inflow of the new religions makes the young generation changed.

Through this study, I hope that Jeju-do's *Teuksu-bonpuri* will get its own position and will be an object of study again.